제319회국회 (임시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8월28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의사일정

1. 통일부 현안보고

심사된 안건

1. 통일부 현안보고 ·····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일부 현안보고

○위원장 박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통일부장관의 보고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즈음 국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특별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낸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률이, 조금 시간이 늦고 저조하지만 우리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명칭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이 '발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회의 때도 많은 위원들에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어떤 정당 간의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비방하고 회의를 중단하고 파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 타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의 합의 등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수차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여러 이유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수차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29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한반도경제포럼 조찬 강연에서 박근혜정부는 초입부터 비핵화를 내걸고 정책을 하지 않겠다며 이명박정부에서 닫힌 빗장을 열어 주었고 최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부 홍보책자 문답자료에서도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경협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힌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통일부장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참으로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찬사를 드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국민들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관계의 성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북과 활발하게 대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한 측면도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우리의 원칙이 통했다 또 북한이 굴복했다 하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북관계는 남북 양자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제적인 관계 전반을 시야에 놓고 보아야 정확한 흐름을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과 북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사는 우리나라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치 큰언니 같은 심정으로 북한을 안고 가야 우리 민족이 함께 잘살 수 있고 한반도에 평화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부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겠습니다.

장관, 보고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장관님 보고 전에 한 가지 특위 차원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지원 간단히 해 주세요.

○안민석 위원 언론에 보면 유엔에서 스포츠특보를 담당하고 있는 렘케라는 분이 북한을 최근에 다녀와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남북 단일팀 추진을 촉구를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터뷰 내용에 장웅 IOC 위원도 만났고 북한의 체육장관도 만났고 실제로 북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측의 인사들은 접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 제안은 이것을 남측에서도 협력을 하고 물꼬를 터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남북특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렘케라는 이분과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예, 좋은 안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보고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남북관계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개성공단사업,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최근 남북관계 주요 현안 그리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남북관계 주요 현안입니다.

첫째,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을 7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14일에 열린 제7차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 방지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한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는 한전, KT 등의 필수인력이 공단을 방문하여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8월 22일부터 공장 시설 및 장비 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총 163개사에 대해 818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였고, 대출금 상환 유예, 고용유지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개성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및 완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동 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3통 문제, 투자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공동투자유치 설명회 등 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단 재가동 일정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복구 등 제반 사정을 보아 가면서 북한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3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고,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9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지난 8월 24일 한적에서 1차 예비후보 500명을 선정하였으며……

○설훈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님, 이 웃통 좀 벗고 합시다.

○위원장 박지원 예, 벗으세요.

○설훈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장관님도 벗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읽고 나서, 보고드리고 나서 벗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저도 좀 벗고.

○통일부장관 류길재 계속하겠습니다.

신원확인 및 남북 간의 생사확인 과정을 거쳐 9월 16일에는 최종 상봉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화상상봉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을 선결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북한은 우리 측 자산을 동결·몰수하고 금강산 지구 내에 체류하던 우리 측 인원을 추방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8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온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9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월 2일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5월 8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0일 통일부 내에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을 설치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에 대해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제의하였으며, 현재 유관국과의 협조 및 대북 협의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단 내 기반시설 및 공장설비 점검 등을 통한 재가동 준비를 하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제도 개선을 비롯한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월 23일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사항 후속조치로써 9월 이산가족 상봉 및 10월 화상상봉을 철저히 준비하고, 차기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과 함께 북한이 동결·몰수한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세부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유관국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남북관계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도 그러시고, 뒤의 우리 통일부 관계자들도 윗옷을 벗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배석자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배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천해성 통일정책실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부기 기조실장입니다.

(뒤를 가리키며)

여기 참고인들 계시고요.

맨 뒤쪽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동근 회담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영 교류협력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웅 개성지원단장입니다.

그리고 이강우 DMZ TF팀의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국회방송의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답변을 포함한 질의 7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7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정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필요에 의거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회선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닫혔던 개성공단이 가동이 재개가 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8·15 담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등등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날리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모처럼 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동안 장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 남북관계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은 우리 박근혜정부가 출범해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우리 장관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그런 대북 메시지 속에서도 항상 유연한 그런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보내 줌으로써, 또 거기에 북한도 호응하고, 이것이 우리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신뢰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1년 12월인가요?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을 죽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진짜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잘 짜여진 한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기시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가 유일체제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과거의 할아버지 대인 김일성 그 당시 주석의 여러 가지 대남전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유화 이런 쪽으로 나온 것이 그 잘 짜여진 북한의 치밀한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최근에, 특히 작년부터 북한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죽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선 위원 장관님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화해무드가 잠시 조성됐다 해서 결코 일희일비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우리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야말로 정말 일관성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대북정책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비핵화를 우리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류길재 여러 가지 저희가 대북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형성에 기반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이고,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한 가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대 정부를 비롯해서 새 정부 역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선 위원 충분히 저도 그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고—물론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얼핏 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또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 정착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놓고 모든 것을 그것에 연결고리를 해서 뭐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되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결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도 '골치 아픈 일을 좀 피하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현상유지 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새 정부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한 기반 위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또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국민들께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비단 우리 한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중국 세 나라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가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회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선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의 방청석에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기획분과위원장, 강창범 피해대책분과위원 그리고 유창근 대변인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별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대표들과 우리 특위에서 한번 좌담회 같은 것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홍익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우선 상당히 복잡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통일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단초를 만들어 내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이끌어 낸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한 일이고 정부가 아주 어려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외통위 상임위 당시에만 해도, 장관급 회담이 무산될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했었는데 이후에 나름대로 남북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좋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주에 통일부 앞에서, 뒤에 우리 기업 대표분들 나오셨지만, 정부청사 뒤에서 시위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보고받았습니다.

○홍익표 위원 항의서한 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홍익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기업 그다음에 내륙에 투자한 기업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피해를 입고 있었고 또 정상화할 시간이……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대화를 해 주시고요.

여전히 장관께서는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주기업 입장에서나 또는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대화가 부족하고 지원방안이 부족하고 대응이 늦다는 것이 일반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우선 개성공단 실무회담 과정에서 회담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우리 남측 대표가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홍익표 위원 서호 대표께서 교체가 됐는데, 교체 사유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언론에 이미 우리 대변인이 밝혔듯이 원래 정기인사 차원에서, 저희가 4월경에 인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가 잡지 못했고……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인사 사유라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 제가 알기에는 서호 대표는 통일부 대변인 발령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변인으로 발령이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직 그 인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고요.

○홍익표 위원 자, 그러면 일간에 얘기되는 국정원 외압설 또는 청와대 외압설로 인한 대표 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리 통일부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홍익표 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제가 믿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서 통일부 간부들로부터 신뢰받는 장관님이 되셨으면,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하나 이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씀 자주 하시지요?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남북회담 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관계자가 항상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남북관계 특수성 속에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원래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음지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정원 관계자는 이미 지원 인력 속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원래 회담을 할 때 통일부가 회담을 하더라도 모든 정책기조나 어떤 회담의 기조 같은 경우는 관련 부처 안보장관회의라든지 공동으로 해서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굳이 회담 대표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우리 국정원 직원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장관께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차원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그 앞에 나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부 주도로 이끌어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원회, 합의하셨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것은 민간인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결정 안 됐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지금 저희가 아직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북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저는 가급적 개성공단 공동운영위원회의 성격이라는 것이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경제적 사안도 있고 물론 안보적 사안도 있기 때문에—경제부처 실무자를 포함해서, 가급적 저는 우리 민간 쪽에서도 한두 분 정도는 포함시켜서 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면 좋겠고요.

금강산 관련돼서 제가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지금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은 10월 2일 제안하셨는데 이 시기는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북측과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일단 저희가 북에다 그렇게 제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의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위원 기본적으로 북측과 협의 가능하다는 의미시겠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일부장관 류길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익표 위원 시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돼서 좀 더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회담 시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통일부가 또 우리 정부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는, 가급적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전개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산관리위원회 구성 합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남북 간에 이미? 보고 못 받으셨나요? 참여정부 말기에 남북 금강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정부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신변 보장과 재산권 보호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금강산관리위원회를 조기에 빨리, 이미 합의된 거니까 조기에 구성해서 여기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 금강산 실무회담이 구성되면 관리위원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것은 좀 쓴소리 같은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장관님이 위원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홍익표 위원 취임 후에 회의 몇 차례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지금 최근에 3기 위원들이 끝나고 4기 구성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익표 위원 회의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회의는 아직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기본계획 작성도 아직 안 됐고 발전위 구성이 됐는데 아직 회의도 안 됐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제 생각에는 직무유기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위원회 구성됐으면 빨리 회의 하시고 이 회의에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빨리 하시고 연도별 계획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통일부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새로 거의 다 작성이 됐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지금 홍익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성공단 실무회담 때 서호 단장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국정원 대표와의 알력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의 주도적 모든 업무는 통일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서호 단장에 대한 합당한 그런 인사를 장관께서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다, 또 국정원의 간섭으로 인해서 서호 단장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학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인천 서구의 새누리당 이학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국민들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또 민생이 챙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유일하게, 상임위라든지 특위라든지 통틀어서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유일하게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의 결단과 지도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야당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북한의 자세가 바뀌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또 남북 이산 상봉의 길이 트이고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참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인데 류길재 장관님과 통일부 관계자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산 상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이 고향이신데요, 고혈압 중풍으로 21년간을 누워 계시다가 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편찮으신 그 과정에서도 고향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고 또 돌아가실 때에는 계속 고향에 계셨던 어머님을 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존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이후에 상봉 희망자 12만 8000분 중에서 지금 5만 6000분이 돌아가셨고요. 지금 현재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이산 상봉을 희망하신 생존자 중에서 7만 2882명 중에서 상봉하신 분들은 지금 1339명밖에 안 되시고, 7만 1543분이 지금 미상봉 상태로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100분씩 이렇게 이산 상봉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그런 추세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몇백 년 걸리는 일이고, 정말 이분들은 10~20년 안에 거의 대부분 돌아가실 분들이신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정부는 이산 상봉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대규모로 한다, 또 상봉을 정례화 한다, 또 장소를 서울과 평양에서 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재가동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산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분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사실은 이것 정말, 저희가 이룬 시작은 그야말로 진짜 시작이고 조족지혈이지요.

저희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좀 상시화가 되고 아니면 정례화라도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만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니 생사 확인이라든가 서신 교환이라든가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상상봉도 사실 과거에 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하기로 됐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회담에서 그런 저희들의 생각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로 남북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항상 마음에 담고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산 상봉을 한다는 데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에 있어서는 덜 챙겨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71년도에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의제로 채택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하고 서신 교환, 상봉 또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 그런 순서를 정했는데 지금 이런 원칙들이 40년 넘게 본회담 의제로 제대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정부에서 이것은 북측에 좀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산상봉을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 확인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신 교환이라든지 상봉, 재결합 그런 순서들을 준용해야 되고요.

또 지금 장소를 당초에는 서울하고 평양을 오가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4차부터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서울하고 평양을 왔다 갔다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임진각이나 도라산역 근처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왕 이번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이십니다.

○김경협 위원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당 김경협 위원입니다.

MB정부 지난 5년 동안의 남북관계는 긴 암흑 터널 속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와중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면 하여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하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해서 입주기업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대단히 걱정해 온 5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 당국회담이 불발되기도 했고 실무회담 도중에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가 바뀌는 등의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이번 합의문 중에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로 이번 합의가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로 디테일한 사안들을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또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성공단 정상화는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 공단이 실제로 가동이 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인들도 지난 몇 달 동안 공단이 폐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비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들을 지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상황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판문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서 교환방식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봐 가면서 가동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협 위원 장관님이 보시기에 그런 정도를 처리하는 데 대강 몇 개월 정도 이런 것을 예측 못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재가동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현재 개성공단 234개 입주기업의 피해신고 금액이 5월 기준으로 1조 566억 원인데요, 통일부에서 지금 현재 피해금액을 집계하고 있는 것은 7067억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재가동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지겠지요? 재가동 시기까지 했을 때 전체 피해 규모를 대강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가 될 거라고 액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참고인으로 기업인들께서 와 계시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은 우리 기업인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무튼 이게 재가동이 점점 늦어질수록 계속해서 기업들한테는…… 이게 5개월 동안 중단된 것만 해도 엄청난 피해일 텐데, 기업 경영상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아마 점점 더 늦어질수록 그 피해 규모가 점점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안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외에 남북 경협들의 피해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5년째에 여기에 관련 49개 기업들이 1900억 원의 투자금을 날렸고 현재까지의 매출 손실이 5100억 원, 그리고 관련 49개 기업 중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파산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기업들에 대한 구제대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미 지금 말씀하신 내륙 투자기업들이나 금강산 기업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겪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우선 가장 보상은 사업을 빨리 재개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보상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금강산과 같은 경우는 사실 원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일차적으로 중단조치가…… 개성공단은 저쪽 북한의 조치지만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중단조치이기도 하고요. 5·24 조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예결위 질의에서 5·24 조치 이후에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사해 둔 자료가 없습니다',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도 없었습니다.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대략적인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에는…… 또 개성이나 금강산하고 좀 다른 측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런 경우에 이런 피해기업들의 규모 이런 것들을 통일부에서 기본적으로 기초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24 조치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투자기업들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 외에 내륙기업들, 교역기업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통일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지금쯤이면 이미 좀 조사가 돼서 뭔가 기초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틀리다고 아예 이런 것도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인데? 그래야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실태를 전수조사 하시고 금강산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륙기업, 교역기업들 이들의 사업 재개들이 가장 급할 것 같은데 이들의 준비를 위해서, 이 기업들의 요구가 우선 방북이라도 가서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파악이라도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북을 좀 허용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륙기업들, 내륙 투자기업들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강산관광사업 관련해서 모든 일에 순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일의 순서를 좀 차분차분히 밟아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심윤조 위원님!

○심윤조 위원 강남갑 새누리당 심윤조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정상화에 합의를 하고 관련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업체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어떤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개인들의 피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께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가 다시 정상화회담에 합의했던, 그래서 대화에 응한 그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왜 폐쇄했고 왜 이번에 대화에

응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북한의 의도를 이렇다 하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한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윤조 위원 알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상황 인식을 잘못 판단한 대단한 정책적 실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시 대화에 응하게 된 배경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또 남북관계 요인이 있는데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의 변화, 그러니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인데 그것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판단의 변화 그리고 대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기존 정책의 상관관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북한정책을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황을 잘못 읽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 간의 전략적 협의를 내실화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초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외적 상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MB정부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핵화를 모든 것에 연계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인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나올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정책적 실수를 다시 번복하면서 대화에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게 그 수용태세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성이 있고 이걸 계속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장관님, 어떻게, 여기에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심윤조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뢰프로세스에는 사실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비핵화를 맨 처음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핵화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호혜적 교류·협력을 하면서 신뢰가 점점 축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보다 더 큰 규모의 경협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심윤조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화를 하고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윤조 위원 이 점은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비핵화의 끈을 놓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계속 동참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학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 주셔서 이것이 상시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상봉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박왕자 여인의 피격사건, 피살사건으로 이걸 중단을 했는데 그걸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 보장,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의 보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기타 과거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 자체의 평가도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맨 처음에 추진하면서, DJ정부하에서 추진하면서 개성공단사업과 남북육로 연결과 금강산관광사업이 3대 프로젝트로 추진이 되었지요. 그것으로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갔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교류가 과연 증대되었느냐, 상호 신뢰는 증대되었느냐, 북한의 개방은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과거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개를 위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지금 여러 가지 막혔던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활성화'라는 표현이 아직은 좀 이른 표현이겠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당히 주요했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과 북이 같이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지 이게 뭔가 관계에 진전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이 서로 좀 같이 뭔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보다는 적어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와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 단초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아이디어를 갖고, 정신을 갖고 추구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5년이 넘었습니다. 장기간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일이 또 남북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지난 5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사이에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하면서 큰 틀에서 한번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단문단답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지요.

처음 시작하는 남북특위에서 거대 담론을 얘기해 봐야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우선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설훈 위원 개성공단이 정치·경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정상화하는 것이?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리 사회의……

○설훈 위원 남북관계 등등을 놓고 볼 때?

○통일부장관 류길재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하십시오,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조금 전에 제가 심윤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좀 큰 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설훈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지금 정확하게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문제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저는 분명히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장래,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며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을 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물론 상대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쪽 처지입니다. 장관이 잘 아시잖아요?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일이 됩니까? 우리 감정이 나옵니다. 저쪽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관이나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지요. 냉정하게,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걸 자꾸 질질 끕니까? 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하자고 해야 합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것 없습니다. 금강산관광 하고 난 뒤의 북쪽의 변화 그리고 개성공단이 진행되고 난 뒤의 북쪽의 변화, 북쪽 인민들 생각의 변화 이걸 왜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서 모든 교류는 간첩행위 빼고는 다 선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 내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보여 줘야 합니다. 우리를 알려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것,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교류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간 교류, 정부 간 교류, 예술 교류, 모든 교류를 다 해야 합니다.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왜? 우리 처지를 알게 되고 북쪽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북쪽의 얼어붙은 장벽을 깨는 방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류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교류를 하라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용단이 없습니까?

제일 쉽게 북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류입니다, 모든 교류. 단 간첩행위는 빼야지요. 그게 요체입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도 나오는 것이고 개성공단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데 불행히도 지금 장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아까 김경협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난 뒤에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마냐 되느냐, 최소한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수치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관광 기업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내륙 쪽에 투자했던 기업들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개성공단 쪽은 국민들이 아니까, 지금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장관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우려고 생각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예이긴 합니다마는 금강산관광 투자 부분에 대해서 80%를 보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보니까, 중소기업입니다, 2억 투자했는데 800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진열대는 투자 부분이니까 인정되고 그 안에 있는 상품은 투자 부분이 아니니까 보상 못 한다 뭐 이런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개성공단에서 고통받는 분도 그렇지만 금강산관광에 투자했던 분들, 그 사업 하고 있던 분들 그분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륙에 투자했던 분들 다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장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부에 반대자들이 많다는 것 압니다. 국정원에서도 반대하고 강경파들이 반대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들 설득해야 돼요. 그분들도 나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애국자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관계에서는 바른 해법이 아

니에요. 강경파가 애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강경파가 오히려 더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우리 국력을 소비시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프로세스 가동하십시오. 좋아요. 가동하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국력이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그러지 않고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내 차로 신의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완전히 망쳐놓고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용을 더 많이 퍼부어야 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이 힘내세요. 강경파들하고 당당하게 싸워서, 장관직 걸고 싸우세요. 우리 내부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내부의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위원장 박지원 설훈 위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잠시 설훈 위원 말씀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 류길재 몇 말씀만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설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일어난 직후에 출범을 했습니다. 또 출범하자마자 개성공단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고 거기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줄기는 저희가 굳건히 갖고 나가지만 주어진 상황을 저희가 무시하고 정책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을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내륙 기업들이나 금강산 기업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과거 정부에서도, 새 정부에서도 역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를 좀…… 어떻게 그분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그야말로 만족할 정도로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한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아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업들, 아무리 그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분들이 겪은 고통을 정부가 마음 같아서는 다 보전을 해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부 내의 강경파 온건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해서 정부의 정책을 보시는 것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지금 장관께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심윤조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비핵화 전제조건의 빗장을 풀어 줬더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둬야 된다, 우리 민주당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설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또 내륙 기업, 평양 근처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습니까?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 다 어떤 정부이건 정부를 믿고 선구자적 입장에서 개성에, 내륙에, 금강산에 투자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정부의 보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그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내륙 기업들 그리고 금강산 진출 기업에 대해서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남북 교류·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이고 평화를 지킬 것이고 또 비핵화로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좀 장관 소신대로 하세요.

강경파, 지금 장관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양에 몇 번 가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보수 세력들 때문에 반대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 북측 인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너희만 수구꼴통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북측에도 수구꼴통이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를 세워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조화롭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이재 위원님, 새누리당 대표 주자로 좋은 질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이재 위원 류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있는 날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도 민화협 조찬 세미나에 오셔서 그날 실무회담이 잘 타결된 것 아닌가, 장관님께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니까 일이 잘 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날 했었습니다.

저는 DMZ세계평화공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강원도에 이와 관련한 공동추진단을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한 건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제가 얼핏은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10시쯤 발표됐으니까 아마 회의 시작할 때 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다가 발표를 하셨고 지금 관련된 논의가, 지금 아주 각계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사안이고 그 이전의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도 비슷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개념이 뭐냐, DMZ세계평화공원의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공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 범위가 일정 구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유치 경쟁, 그래서 지역 갈등이 또 조장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뭐고, 관광목적이냐 뭐냐 말이지요.

이것이 사실 분단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나온 구상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되기는 무슨 개발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장관께서 아시는 한 DMZ세계평화공원의 개념에 대해서 목적과 추진 로드맵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DMZ세계평화공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분단 상황이 장기간 되고 그러면서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남북한의 분단 분열 적대 대결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고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서해에서 동해까지 248㎞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장관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들은 지금 특정한 장

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다가 일단 조성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무슨 관광사업이 되고 개발사업이 됩니다.

분단의 극복, 해소라고 하는 분단의 질곡을 해체하려고 하는 고뇌에 찬 구상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이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재 위원 세계평화공원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관련된 국제회의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의 세계 선례를 보면 주로 자연생태나 뭐 이런 쪽으로 국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북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관리를 위탁시키자는 것인지 함께 하자는 것인지 이런 개념부터 주무부처에서 좀 충분한 개념 정리와 구상을 한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하실 때는 그만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제사회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상대가 있고……

○이이재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조속히 개념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혼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령 북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말씀들도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시중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부에서 실제로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들입니다.

○이이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 주셔야지,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는데 정부가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이재 위원 대통령께서 이것을 발표하신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주무부처에서 그런 구체적 구상을 가다듬지 않고 않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선 북한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국제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와는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북한과는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취지로 앞으로 갈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이재 위원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이 발족한 것이 언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5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이재 위원 기획단장님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괜찮으시면 혹시 우리 기획단장에게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이 통일부 자체로 출범해서 그동안 한 일은 사실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일단 7월 말에 수립을 했습니

다.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정리하시지요.

○이이재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 보고를 안 하셨나요? 그 구상이 뭐예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범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무장지대 전체를 어떻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비무장지대 안에 소규모 지역에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이이재 위원 관광 목적인 거예요?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그런 관광 목적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평화프로젝트이고 우리가 그 지역……

○이이재 위원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지원 이이재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생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민주당의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저는 요즘 문화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아, 그래요?

○안민석 위원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2007년 제 지역구 오산, 제 집 오산서 출발을 해서 개성까지 제가 차를 직접 몰고 개성 시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앞으로 개성이 아니라 평양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을 희망했었는데 지금은 판문점조차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슬픈 역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의를 드릴 텐데, 제 주장보다 우리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별이 총 16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안민석 위원 군 출신들이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으면 대북정책에 강경파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되는데 그런 것 체험을 하시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우려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저도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그런데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의 출신이 무엇이든 간에……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뭐 강경파가 득세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안민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온건한 장관님이 이미 강경파들의 논리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들어 보세요. 개성공단 회담을 제안하면서 장관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주로 벼랑 끝 전술로 흔히 쓰는 표현인데요,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마지막 회담일 수 있다' 이런 극한의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적절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 결과로 개성공단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했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는 그 시점에는……

○안민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극한적인 용어를 계속 즐겨 쓰실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안민석 위원 이런 식으로 장관이 극한적인 용어를 쓰니까 대북 안보 라인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표현이 있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우리 한글 표현이 있는데 왜 장관께서, 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워딩(wording) 아닙니까? 이런 표현은 자제를 좀 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금강산 관련 기업인들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금강산 전체 기업 피해액을 얼마 정도로 추산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대충요.

○위원장 박지원 안민석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금강산 입주기업 대표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금강산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박지원 아, 죄송합니다. 개성공단……

○안민석 위원 장관님, 적어도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피해액수가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 이것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기보다는 금강산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안민석 위원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한 5000억 원가량……

○안민석 위원 정부가 5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악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장관께서 금강산 피해 기업인들을 왜 안 만납니까? 좀 조속히 만나 주세요. 만나서 일단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 보세요. 그분들 얼마나, 자살한 분도 있고 지금 건설현장에서 그냥 노동하는 분들도 있고, 딱하지 않습니까? 일단 억울한 사정을 들어 보시고, 피해대책은 그다음이니까, 조속히 만나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강산 안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기업인이 지은 것인데 이 골프장이 지금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다시 금강산관광 재개되더라도 골프장은 다시 잔디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 규모가 한 50만 평에 이르거든요. 어처구니없는 것이지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무슨 구제대책을 마련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쓰라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 보셨어요? 금강산 골프장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 상상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 정도는 저도……

○안민석 위원 골프장은 항상 관리해 주고 깎아 주고 물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골프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앞으로 그래도 우리 금강산관광의 상징이 될 것인데 이런 기업에서 이후에 골프장을 다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요청하면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좀 도와주십시오.

○통일부장관 류길재 (고개를 끄덕임)

○안민석 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북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당국 차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북한은 했어요. 금강산관광 재개 제안 과정에서도 했고 현정은 회장 만날 때도 했고 이 정도면 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왜 자꾸 정부가 안 했다고 하고, 한 것을 자꾸 안 했다고 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정부가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하구나, 또다시 살라미 전술을 써서 조각조각내서 끌고 가서 북한의 정책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 연결로 이거 광을 팔려고 하는구나 그런 오해를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살라미 전술을 쓰지 마시고요.

자, 금강산 장안사에 있던 종 하나가 중국 대련의 여순박물관에 하나가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있습니다.

이것 이제 환수 운동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환수를 받게 되면 일전의 북관대첩비 사례처럼 북한으로 보내 주는 절차를 이행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선 제가 사실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민석 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오늘 신문에, 아침에……

○안민석 위원 만난 적은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분은 유엔의 체육·스포츠 특별보좌관이신데 북한을 다니시면서 고위당국자를 만나서 2015년 광주 U대회에 남북 단일팀 촉구 요청을 하시면서 남한 통일부장관조차도 만나질 않고……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위원장 박지원 자,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 가시기 전에 장관께서 접촉하셔서, 만나 보셔서 북한에서 무슨 얘기 했고 유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남한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협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안민석 위원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민들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하세요.

장관님, 답변하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또 남북관계 특히 관련된 사안들,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개성공단이 됐든 금강산관광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사안들이 다시 후퇴하지 않는, 다시 되돌아가서 또 이게 중단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확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신뢰를 쌓겠다, 그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다시 가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혹시 장관께서 살라미 전술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위원장 박지원 안민석 위원님……

○통일부장관 류길재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안민석 위원 좋아하시지요?

○위원장 박지원 그만해요.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살라미 전술을 좋아해서 살라미 전술을 즐겨 쓴다는 이야기를 일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안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좋은 내용을 전연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겁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의 이종훈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당사자 간에 공단 폐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남북 당사자가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합의문을 읽어 보고 참 비껴가도 많이 비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 모호성이라 할까요, 그런 게 느껴졌는데 폐쇄까지 가게 된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이 명확해야 재발 방지에 대한 것도 신뢰가 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선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의 강경 노선을 좀 누그러뜨린 것처럼 보인 것이 북한의 변화라고 볼 수는 있는데 변화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태도 변화나 진짜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장관님은 보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남북관계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분단 68년을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북한의 태도 변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태도 변화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 3월 말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북의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과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표방한 것으로 알고 핵 무력은 지난 2월에 3차 핵 실험으로 내부적으로는 달성

된 것이고요. 그런데 경제 발전이 어려우니까 연 8, 9000만 불의 황금알을 놓치기 어려워서 비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살리고 실리도 챙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장관님은 인지해 주시…… 또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게 어떤 수사가 아니라, 어떤 합의문의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앞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합의문에서 제가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남북공동위원회예요.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당국 간의 그런 것인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실질적으로, 그냥 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아 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아닌 다른 법·제도가 필요하면 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문은 저희가 남북이 서로 판문점을 통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곧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예컨대 금년 3월 달, 4월 달에 벌어졌던 그와 같은 일들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그걸 북이 공동위원회에 와서 우리 당국자들끼리, 그것 당국자들끼리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오해를 풀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 말하자면 금년 3월, 4월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은 방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좀 더 위원님께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저희가 국제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화라든가 또는 과거 남북 간에 개성공단을 놓고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실제로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3통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제 당국자들끼리 모여서 중요한 제도라든가 정책을 거기서 결정해서 처리하자 이것이 공동위원회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뢰프로세스란 게 제가 노사관계 쪽을 주로 그동안 경험도 있고 공부도 했는데 노사관계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당사자 간의 신뢰는 첫째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금세 쌓이는 것이 아니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원칙이 없으면 신뢰는 절대 안 생깁니다. '아, 이게 힘으로 이 정도 밀면 저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통해서 당사자가 아니라 남북 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서로 좋구나라는 것이 돼야만 신뢰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공동위원회도 그렇고 공단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 향후 협상도 그렇고 성과를 보이는 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지키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개성공단이건 금강산관광이건 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가 쌓여서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조금이라도 보이는 데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모범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다음에는 민주당, 파주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으로서는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보다 남북의 평화 발전 그리고 공존·공생에 관심이 많

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국무총리비서실장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최초의 남북총리회담의 전 과정을, 모든 회의를 다 참석하고 모든 보고서를 다 보고…… 바둑을 두면 복기한다고 했지요. 복기하는 보고서까지 다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많고 또 기대감도 많습니다.

그때 경험을 반추해 보면 남북관계 문제를 다룰 때 부처 간의 협조가 아주 긴밀한데 통일부가 주무 부서지요. 그런데 국정원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방부의 의견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얘기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통일부의 간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요, 정부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통일부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감격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북한 체제, 북한의 정권이 조만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혁·개방을 통해서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변화·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어떤 쪽이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는 북한이 올바로 선택을 해서 개혁·개방의 길로 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윤후덕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핵 문제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핵 문제의 해결 없는 대화 없다'라는 게 아마 MB 정권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핵 문제하고 대화와 또 협의·협상, 지원의 문제를 병행해서 하는 정책 방안이 있고 선핵 문제 해결, 후 대화 이런 정책 방안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정책 방안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문제와 기본적으로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 인도 지원을 타이트하게 연계시키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병행 입장이라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언젠가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목표다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과 대결적 구조로 갈 것이냐, 협력적 구조로 갈 것이냐, 수수방관을 할 것이냐…… 아마 지난 5년 이명박 정권은 수수방관과 갈등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장관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이분법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윤후덕 위원 아니, 삼분법입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아주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주당하고 다르지 않은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꺼지지 않는 불,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공단이 되었어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이 공단이 멈췄지요. 이제 다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 다시는 멈추지 않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해법을 낸 것이 개성공단의 국제화입니다. 국제화의 구체적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기본적으로 외국기업들도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단을 일컫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 협의에서도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자라는 내용이 있고 또 제삼국 수출 특혜관세를 인정받도록 하자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자 이런 좋은 내용

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 네 가지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장관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자회담의 당사자들이, 나머지 4개 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개성공단에 좀 꼭 입주할 수 있게 그렇게 6자회담 때 의제로 설정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서 3쪽의 세 번째 맨 마지막 동그라미지요, '8월 27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월 2일 개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 내용은 어저께 제가 미리 받은 보고서에는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제의한 8월 22일하고 우리가 지금 입장을 전달한 10월 2일하고는 한 달 열흘 차이가 납니다. 협상을 하자는 날짜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하고 금강산관광 문제가 연계돼서 혹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될까 하는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분리해서 보시고.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북한은 현정은 회장이나 정부 당국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또는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당국 차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다시 제안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든지 이산가족 문제든지 금강산 사업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얽혀 가지고 연계가 돼서, 연관이 돼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들에게 보냈던 통지문에서도 금강산관광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연관돼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안들을 서로 엮어서 접근하지 말고 따로 따로 놓고 보자는 것이, 또 그렇게 되어야만 각각의 사업들이 좀 더 내구성을 갖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회담 날짜를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강원도 출신 황영철 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을 거고 또 그 뒤로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도 접경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잠깐 구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대통령 행사에 함께하실 그런 오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의 합의하에 통일부장관께서는 오후 1시경에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점심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이전에 질의가 끝나면 간사 합의로 보충질의를 장관께 하실 분은 5분 내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가시면 통일부에서는 차관이 대기하시다가 오후 회의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 참 피눈물 나게 고통을 참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가 위원님들 네 분 발언이, 질문이 끝나면 입주업체 대표자 한 분에게 5분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장관님이 계시는 데서 또 위원들이 계시는 데서 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점심시간이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님에게나 통일부 관계자, 위원님들 또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과 관련된 기획단이 5월 20일 출범했고요, 아까 기획단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말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스터플랜……

잠깐 나오시지요, 중요한 문제라서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5월 20일 출범해서 7월 말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맞지요?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영철 위원 마스터플랜의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은 또 어떤 개념입니까?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그러니까……

○황영철 위원 아이디어만 제공한 차원입니까?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기본적인 방향, 콘셉트 이렇게 정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논쟁이 필요가 없고요. 그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평화공원과 관련된 국민적인 생각 또 언론의 시각 그리고 각 지자체의 생각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콘셉트가 뭐다, 그리고 이것이 영역의 문제냐 포인트의 문제냐 등등……

지금 말씀한 걸로 들어 봐서는, 언론이라든가 국민들 생각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걸로다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 듣는 걸로는 포인트예요. 그냥 어떤 지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굉장히 개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선을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사업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름만 가지고 협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황영철 위원 잘 살펴 주세요. 요즘 통일부가 굉장히 일이 많아지셔서, 환영할 일입니다만, 힘드시겠습니다만 일이 많아진 건 국민들에게 좋은 거니까요.

국민들의 생각을 저는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평가는 어떤가? 좋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보면 일단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소위 요즘 시쳇말로 해서 갑을관계로 평가하면 남한이 을이고 북한이 갑이었다 이렇게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을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형적인 변화가 행여라도 원칙만을 강조하다가 또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해서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태도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답변하셨지요? 장관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당연히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중에도, 분단이 68년 됐습니다. 70년이 가까워집니다. 남북 간 최근에 벌어진 일들만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여러 가지 선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통일부가 북한 정세를 파악하는 토대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판단의 근거를 내릴 만한 그런 정보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대단히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는 북한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자 간 회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북한이 변화하는 이즈음에 우리가 다시 대북정책, 이런 북한의 변화들을 얼마만큼 개

혁·개방으로 추동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노선들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여러 가지, 당국자 회담에 밀려 있고 하지만 큰 틀에서 남북 간, 특히 북한 간, 북한 내부의 지형적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남북 대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에 그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시점에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민간 또 당국자 이외의 교류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정치권이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의 교류도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황영철 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지금 분위기를 정부가 같이 진정한 평화통일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까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동해 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위원장 박지원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만 더 답변을……

○위원장 박지원 예,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북한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동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속에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정부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상대방을, 더구나 그것을 북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텐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같이 가서, 남북관계가 그렇게 가는 것이 발전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북한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 체감을 하고 인식을 해야지 저희가 마치 무슨 공작하듯이, 전략전술을 짜듯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 간 여러 가지 현안들과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류·협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같이 같은 길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올바른 선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교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막겠다 이런 뜻을 말씀드린 적도 없고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지금 몇 년 동안이나,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닫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닫혀져 있게 된 원인이 지금 거의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몇 번의 개성공단 합의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부가 갑자기 '아, 그럼 지금부터 민간 차원에서 교류도 다 합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황영철 위원님 잘 이해하셨지요?

○황영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위원장 박지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출신입니다마는 동료 국회의원이신 고희선 의원님께서 작고를 하셔서 오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함께 못 갔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고희선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거기 다녀오신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일단 간단한…… 간단한 게 하나도 없지요. 남북관계, 이것 합의문 보면 간단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질문은 간단해요.

이게 관세, 특혜관세 이거를 이렇게 합의문에 넣을…… 이것 바람 사항이지, 사실 희망 사항이잖아요. 이거 보면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했는데 이거를 남과 북이 우리 맘대로 정해서 다른 나라한테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희망 사항인 거잖아요?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걸 하는 게?

○통일부장관 류길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숙 위원 예.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국제화와 국제적인 공단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여러 분과, 특히 국제화와 관련된 분과도 만들어서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또 국제사회와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겠다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런 희망 사항이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단순히 희망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하는……

○박인숙 위원 이루어 내겠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그 합의문에 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국제 수준의 임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개성공단의 큰 메리트라고 할 게 임금이 높지가 않은 건데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합의문에 있거든요.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숙 위원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가 역시 이런 것들도 같이 또 논의를 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이 되려면 우리가 국제적인 공단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더드가 이렇게 딱 국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번에 남북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싱가포르가 했던 소주공단 얘기를 남과 북이 서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무슨,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부터 이걸 당장 바꿔 나가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박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국제적인 수준을 어느 나라의 수준에 맞출지, 남한에 맞출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아까 북한의 보상 문제, 지금 개성공단의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북한·남한이 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역시 그것도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역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도 합의문에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 보상' 이게 정확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 합의서에 저희가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이번의 그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만 그 고통에 대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보상하는 데 동참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넣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내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도 같이 동참해서, 왜 우리 한국 정부만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북한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서는 저는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일단은 상징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 그거를 이끌어 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단순히 상징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위원 아니, 상징을 해야지 또 그다음에 실천도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앞으로 그것은 남북이 서로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위원 이것도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북한에서 노크하고 탈북한 분 있잖아요. 23일날에 인천 교동도 해안에서 가정집으로 탈북한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그 일도 있고 오대양호 납북된 선원 한 분이 입국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개성공단이니 남북 이산가족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이게 막 합의문 나오고 이런 예민한 시간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으로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잘 다뤄야 되실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신 질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을 같이 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모든 사안들이 사실은,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하나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안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북 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어떤 사안들이 좀 더 중요한 사안이고 어떤 사안들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사안들인지, 어떤 것들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좀 더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인숙 위원 하나하나씩 풀지만 또 서로 연관이 되고 사소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또 트리거(trigger)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하지만 중요하고, 다 같이 통합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도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그런 모든 사안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방향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야 간사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간사이신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그래도 장관님 요새 마음이 좀 편하시지요, 지난 5월 6월 이때보다는? 지난 8월 14일 이후부터는요.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많은 희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다시 물을게요.

개성공단, 아까 어떤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가동 들어가실 계획이에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재현 위원 기업이 준비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정부 간에, 남북 양당국 간에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같은 것들이……

○백재현 위원 그런 절차가 끝나야만이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설이라든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물리적으로도 시설 점검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백재현 위원 물리적인 일만 빨리 끝나면 들어갈 수…… 그것까지 진행 안 됐다 하더라도……

자, 뒤의 공단에서 오신 분들, 정기섭 기획위원장요.

공단이 물리적으로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고

점검해서 하면 언제쯤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당기면?

○참고인 정기섭 당장 저게……

○백재현 위원 전체 말고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기업 하나라도.

○참고인 정기섭 아니, 대다수가 금주 중에 가능합니다.

○백재현 위원 금주 중에 다 가능하다?

장관님, 그러면 금주 중에 기업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가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남북이 서로 정상화 합의를 했고 그 합의 이행을 위해서 남북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기업은 준비가 다 돼 가지고 하루가 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 또는 남북 간의 이런 절차 때문에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남북 간에.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북한 당국의 처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남북 당국 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상화 합의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당국 간에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서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 가고 있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상화 합의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백재현 위원 공동위는 인선 다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 아직 그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뭐 사람 인선하는데도 몇 주 가고 북한에도 통보해서 서로 협의하려면 몇 주 가고…… 그러면 금년 연말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백재현 위원 정부가 하는 처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10월 달 가고 11월 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추석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추석 때는 시작하기를 원할 거예요, 기업들은. 추석 때도 쉬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금주에 가능하다면 적어도 다음 주에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유념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주도록 노력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5·24 조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대놓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는 어렵지만 되돌아보면 5·24 조치가 떨어진 지가 벌써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월이 많이 갔어요. 이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간에 거의 민간 교류가 다 끊어져 버렸던 상황이 만들어졌고 모든 무역 금지나 대북 지원 금지 전부, 남북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던 내용이 실제로 5·24 조치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5·24 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 뭔가 분명한 입장을 발표를 하든가, 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정부가 앞장서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정부가 앞장서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지난 3년 동안, 새 정부 역시도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 일관된 입장에 지금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정부가 좀 다른, 앞장서 가는 얘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역사적으로 기록해 온 것을 확인해 보면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한번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 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같이 했던, 특히 서방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적성국가라는 틀로 해서 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국가라고 해서 또 제재를 한 적이 있고.

2006년에 1차 핵실험해서 1718호 제재를 했습니다. 2009년에 2차 핵실험해서 1874호로 제재를

했고, 2012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때문에 또 3차 제재가 들어갔지요. 2087호로 제재를 했지요. 그리고 지난 3차 핵실험이 끝난 후 2094호로 또 제재를 했지만 이런 제재가 과연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과연 북한이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해 왔어요. 그것은 이런 제재보다는 북한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핵이 지금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가장…… 체제 보장이 가장 큰 가치라고 볼 테니까, 북한은요. 핵이 가장 핵심이었고 핵을 가져야만이 자기 체제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그 사람들 목표겠지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갔어요. 그 후 유엔에서 한 것처럼 1718호부터 2094호까지 네 번의 제재를 했고 또 옛날 테러국가, 적성국가, 공산국가 이렇게 제재를 쭉 해 오면서도 요새 경제지표를 보면 북한이 무역량도 늘어나고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현상을 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대북 관련된 제재 조치들이 실효성이 없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간 건 교류밖에 없다, 아까 설훈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간첩 행위만 빼놓고는 남북 간의 모든 교류는 선이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통일정책, 남북관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통일부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통일이 뭡니까? 남한이 북한을 잘 이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남한을 잘 이해함으로써 교류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통일정책이고 통일로 가는 길이다…… 간첩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장관님,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질의를 주신 건 아니지만 제 의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북한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유엔에서의 제재 이 부분은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분명히 국제사회, 특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특히 남북 간에 있어서는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류는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교류라든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화와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에서는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하나의 구호로 그리고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 질서 있는 교류 때문에 간섭하게 되고 뭔가 제재를 함으로써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원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백재현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사실 회의 진행을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을 제한하고 통일부장관께 정부입장을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께서도 물론 장관으로서 갖는 애로가 있지마는 좀 짧게 그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간사이신, 접경 지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영우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 이강우 평화공원기획단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도하 일간지 또 방송에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DMZ세계평화공원은 파주·철원·고성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고려 중이다’…… 어디입니까, 세 지역 가운데? 세 지역 가운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입지는 저희들이 그 세 군데 어디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관계 부처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공원처럼 덩그러니 그냥 어느 DMZ 가운데 말이죠, 공원 식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 DMZ가 한반도 신뢰를 쌓고 또 DMZ가 세계인들과 소통을 하고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공원사업, 개발사업처럼 되어 버리면 말은 ‘세계평화공원’이라고 딱 붙여 놓고 지자체 간의 아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유치 경쟁으로 흐르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DMZ세계평화공원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남북이 어느 지점에 어떤 식으로 또는 DMZ 전체 접경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혹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단추부터 같이 꿰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사실 DMZ세계평화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평화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입지를 놓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정부는 지금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소모전으로 또 여러 가지 억측과 논란으로만 지금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아직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언론에 났고 또 오늘 기획단장이 7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왔고, 그 얘기까지 지금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세 지역에 대해서 어디를 고려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렸더니 특정 지역은 아직 아닙니다마는 아마 세 지역 중심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우리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이슈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이슈 관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엄청난 이런 갈등—특히 지역에 가면 더하죠—을 촉발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개념 정립을 빨리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원, 무슨 SOC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죠.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간에도 서로 화합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할 일이 있으면 희생, 헌신할 자세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개발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개념 정립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 제가 오래전부터 제안을 해 왔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특히 DMZ나 접경지역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좀 먼저 하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올 여름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북쪽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년 겪는 홍수 피해를, 특히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매년 DMZ 안에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소방헬기를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DMZ 내의 산불 공동 대처하는 것, 또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접경지역 북쪽에서도 말라리아환자가 1만 명 이상, 1만 6000명가량 발생했다고 하는 통계 발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또 우리 쪽으로 확대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런 말라리아, 병충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상 예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방송국에서? 그런 것도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역의 날씨 예보를 해 주는 게 좋다

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남북이 공동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도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만들듯이 접경지역 남북공동 관리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실질적인 것부터 먼저 해야죠, 또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사실은 남북 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아주 필요한 일이고, 특히 이런 사업들 말고도 사실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것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진전이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신뢰가 쌓일 것이고 신뢰가 쌓이면 저희가 더 큰 사업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결의안을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우선순위를 필요한 것부터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대지가 약 100만 평, 5만 3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123개의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죠?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개성공단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상징입니다. 산물입니다. 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제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 또 당시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공식 수행원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재임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때 정상 두 분이 말씀하시는 데 제가 배석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개성공단은 약 800만 평을 개발합시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개성시와 개풍군의 동원 노동력은 5, 6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800만 평을 개발해서 언젠가는 합숙소, 기숙사를 지어 주면 북한 군대의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제가 북한에 올라가서 별도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북한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말씀하시는데 남북관계, 개성공단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적용시켜서 예를 들면 80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은행에 쌓아둔 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투자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아주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의 투자처도 있고 또 건설 경기가 부진한데 건설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고, 30, 40만의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빵이다, 라면이다, 두부다, 고기다, 심지어 초코파이까지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 산업들이 훨씬 많아지고……

지금 개성공단 5만 3000 북한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자들까지 다 하면 약 12, 13만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평화도 얻고 돈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통일부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장관께서 다 적절한 답변을,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딱 한 가지는 좀 이게 심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나쁜 답변을 하셨어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일주일이면 다 모든 것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하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곧 한다'…… 물론 정부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북한 측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김정은 제1

비서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또 경제적 이유로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좀 더 협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빨리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123개 우리 중소기업 진출 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묻습니다. 한 달 내에 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정상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동 시점은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무슨 뭐 정부가 끌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문제라고 하면 몇 시간이에요? 며칠이에요, 몇 달이에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건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합의 이행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서 '가동을 지금부터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지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주 이번에 최고로 잘 하시는 통일부장관이라고, 이 박지원이가요 남 비판을 제일 잘하는데 방송에 나가서 류길재 장관 수십 번 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다, 내가 답변은 그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그러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대표 세 분이 나와 계시는데, 아무 분도 좋습니다. 약 5분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정기섭 개성공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섭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고 국내 대전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도 공장이 있고 개성에 한 960명 정도 일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운 거는 이런 점입니다. 전에 저희가 4월, 6월 달에 대단히 힘들 때 공단을 어지간하면 다시 재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때 정부당국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북이 저렇게 잘못해서 공단이 닫히게 됐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입주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시각과 판단이다', 저희는 그 말에 충분히 타당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따라서 오늘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월 14일 합의는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아주 잘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개 여부에, 또 정상화 여부에 관한 큰 결정은 그런 국민들의 시각에 맞춘 만큼 이제는 입주기업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가동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또한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도 공단 공장시설을 점검하러 들어갔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업종에 따라서 나눠 들어간 다음에 전체가 보고 와서 내주부터라도 곧 가동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정부당국에 조속한 재가동을, 또는 전면 가동이 어려우면 부분적인 가동이라도 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는 각 기업이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기계의 묵은 때도 또 녹도 닦아 내고 그렇게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월요일 날 저희 기업 같은 데도 인원을 120명 신청했는데 50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 측이 안 보내 준 게 아니라 우리 당국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00명을 신청했는데 그 인원을 3000명으로 줄였는데 그러한 규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의류 업종이 개성공단의 60%를 차지하는데 9월을 넘기게 되면 춘하 시즌의 의류 주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늦었는데. 그래서 공단을 재개해 갖고 기업을 살려줄 요량이라면 시간을 늦추지 말고 그 공단 관련된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협의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잘 논의하셔서 정말 좋은 공단을 만들어 주시고 기업들도 더 이상 타격받지 않게끔, 저희같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의류 기업도 하루에 2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개하면 2500만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빠른 재가동을 해

줄 수 있도록 우선 우리 통일부에서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공동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기업들의 살아있는 의견도 좀 부분적으로 잘 전달되고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옵서버(observer)로라도 꼭 참여를 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경협보험을 타는 것은 기업들이 한계에 처했기 때문에 긴급한 운영자금에 대체코자 해서 그런 것이지 공단을 포기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제가 사실은 한 1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아주 딱 맞춰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지금 우리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기획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절규입니다. 통일부장관이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요.

오후에 차관을 모시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안민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지원 잠깐 계세요.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행사에 배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시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새누리당 김영우 간사님이 배려를 해서 여당에서 조정을 좀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5분씩 내에서, 장관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1시 15분에 장관님이 이석하시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다른 문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안민석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분 더 드릴게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에 의거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경협 위원님, 다음은 이이재 위원님이십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당 김경협 위원입니다.

DMZ평화공원 계획 뭐 죽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하나 뭐 여담 삼아서, DMZ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 휴전선은 포기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뭐 그것 휴전선의 성격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경협 위원 관계없을 것 같지요?

아니, 저번에도 보니까 '서해평화지대를 만들면 NLL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국내의 아주 황당무계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신변안전 보장장치 이것을 죽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이 신변안전 보장장치에 대해 어떤, 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지금 금강산 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담…… 저희도 회담을 앞두고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없습니까, 신변안전 보장장치에 대한?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뭐 구상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어차피 그쪽에서도 알아야 될 텐데 미리 저기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면 더 쉬운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뭐 회담이고 협상이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렇게 뭐 비밀이 유지돼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쪽에다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거기 북쪽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결국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공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뭐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이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산가족 7만 1543명이 상봉 신청을 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00명씩 상봉한다 그러면 716년이 걸리고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200명씩 상봉을 한다 그러면 358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산가족들이 300년 이상 살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산가족들이 지금 현재 한 해에 사망자가, 몇 분쯤 사망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대략 한 4000여 분 정도가 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연간 3800명의 이산가족이 사망을 하고 있고, 상봉 신청자 중에서 상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상봉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 숫자가 5만 4600명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평균 수명이 앞으로 최대한으로 봤을 때 한 20년 또는 30년이라고 봤을 때 정말로 1년에 몇 명씩 상봉을 해야 살아생전에 자기 가족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상봉 행사를 어떻게 해야?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래서 사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봉……

○김경협 위원 이제 모색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건 미리 좀 모색이 죽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것은 사실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북한당국이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서로 같이 합의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물론 이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호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뭐 신뢰프로세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떤 구상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깔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경협기업들의 피해 규모, 피해 문제, 여기에 있던 이산가족들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가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좀 전반적인 이런 계획들을 짜고 그런 계획 속에서 협상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가족도 금년에도 겨우 100명 이렇게 합의된 이게 다인데, 여기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분들한테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좀 나와 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지원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나중에 북한하고 잘됐을 때,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이재 위원님, 그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이재 위원 장관님, 아까 제가 DMZ세계평화공원 말씀드렸고 또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의, 맥락을 같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평화공원이니까 '평화'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연생태 보존' 뭐 이것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DMZ공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고생들이, 민간에서 말이지요.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그 안의 지뢰라든가 위험물 제거를 하고 GP, 소위 초소를 뒤로 물린다든지 또 철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밝히지 못하는가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한 자연생태 보존에 동시에 목적이 있다면…… 장관,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게 우리 한반도의 세로 축, 자연생태 축이지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지리산까지.

그렇다면 이 DMZ는 결과적으로 동서의 정말 중요한 자연생태 축인데, 여기에다가 특정 섹터 개념의 이 평화공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고 결국 동서 간의 생태 축이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연결된 개념이냐 아니면 일종의 부분적인 개념이냐 하는 것들을 잘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강우 기획단장님, 7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예,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외비나 뭐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아직 대외적으로 공론화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게 좀……

○통일부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제가 별도로 대면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민주당 안민석 위원, 다음 박인숙 위원 준비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아까 장관님께도 여쭤 봐 드렸는데, 그 뒤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실무자 분들 많이 계신데, 중국의 여순박물관에 금강산의 장안사에 있던 종이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종을 여순박물관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저랑 같이 이 환수운동을 하시는 민간 전문가들하고 판단할 때 이게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환수운동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이 종의 존재 유무는 심양 총영사관에서 지난주에 외무부하고 문화재청에 이 종의 존재를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우려는 이것 어렵게 환수받아 왔는데, 이게 북에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북의 어떤 화해와 교류와 평화의 상징으로 이 종을 쓰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 통일부에서 이것을 북에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북관대첩비 그 사례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장관님께서 저희 방으로, 저에게 따로 좀 서면이든 뭐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돌려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환수받아서 일단 장관님께 먼저 드리고 장관님 손으로 북에 주도록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협의회에서 두 달 전에 밀가루 1000t하고 옥수수 1000t 승인 신청한 것 장관님 혹시 아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까 장관님 말씀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지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던 편이던데, 이것 왜 승인을 안 해 주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5·24 조치 이후에 밀가루와 옥수수를 인도지원 품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앞으로도 이것 승인 안 해 주실 거예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지금은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하여간 뭐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 가지고 장난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동포들에게 이것 민간단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서 힘들게 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이것 좀, 장관님이 이런 것은 좀 통 크게 결단하셔서 빨리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내년 봄에 아시아 백혈병소아암 학술대회를 합니다. 이 단체에서 내년에 북한의 소아암 전문가, 의사들을 초청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뭐 장관께서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없으시겠지요? 정말 인도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것도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장관께서 '그것 좀 해 줘라'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뭐 사안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볼 때는 DMZ평화공원 이것 잘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잘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유엔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능한 것을 좀 이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유엔이 광주 U대회의 남북한 단일팀 추진을 지금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엔의 지원도 받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전혀 검토해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북에 마식령스키장을 짓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곤돌라인데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에 의해 가지고 곤돌라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엔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2007년도에 평양 사동에 남한의 기술력으로 북한에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 준 사례가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관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식령스키장 같은 경우에도 곤돌라 이런 문제를 남한이 나서서 해결해 주면 북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많은데 위원장님이 하도 뭐라 그러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다음에 우리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

○박인숙 위원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 많은데 이산가족 상봉하고 개성공단 재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질문도 많았고.

금강산관광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과를 한 번도 못 받았지요? 사과가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원칙은 좀 있어야 되고 그때 2008년 7월의 그 사건이,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로 2010년에 정부에서 3대 선결과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장치 마련 이런 것을 북한에 제시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게 협상에 오르겠지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확답을 받으실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하여간 저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아산에서 거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몰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대아산에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그것을 떠맡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종합해서 금강산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 달에 우리 관광객이 피격 사망함으로 해서 빚어진 사건입니다.

저희가 남북 간에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히 개성공단 문제를 저희가 봤듯이 그 문제가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기 싸움 하듯이 자신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사업이든지 이것이 남북 공동의 노력이고 또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를 위한 어떤 협력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부합해서 지속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2008년 7월 달에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처가 무엇인지는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까 언급하셨던 사과라든가 진상 규명이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남북이 서로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 인식을 서로 같이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항목, 어떤 항목,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것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 평화 협력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현대아산, 잠깐 짧게만 대답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거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북한에서 다 몰수했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현대아산의 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숙 위원 예.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그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재산권, 북한이 지금 자신들이 2011년도에 금강산관광특구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재산들을 다 지금 몰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저도 자꾸 얘기했지만 박왕자 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 그리고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 몰수한 재산의 환원, 재발방지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저도 북한이 최소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윤후덕 위원!

○윤후덕 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장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민생이지요. 북측 얘기가 아닙니다. 남한 쪽, 우리 백성의 민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전면적 가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가동이라도 좀 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들었고 또 정부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장관이 들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가요. 좀 결단을 해서라도 부분적 가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8000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재가동에 필요한 시설 점검을 위해서. 북측 근로자 800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쪽 정부가 이것을 줄여서 3000명만 허가를 한 모양이에요. 이 경위가 어떤 겁니까? 재가동을 준비하는 것을 조절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한 설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고……

○윤후덕 위원 필요 인력을 기업에서 판단하나요, 통일부에서 판단하나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면 저희들은 또 전반적인,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디가 특별히 판단을 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기업이 필요 이상의 인원을 요청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일단 개성공단의 부분 가동이든 정상 가동이든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실제 재가동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간 필요하고 또 얼마간의 노동자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밀가루를 지원하겠다는 민간단체 것도 불허를 했습니다. 이게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에 5·24 조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5·24 조치는 남북 간의 교역·교류를 전면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박이 남쪽 해역 통과하는 것조차 봉쇄하고 있

습니다. 얼어붙었지요.

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보자라는 게 새 정부의 의지이고 철학이고 대통령님의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잘못된 5·24 조치는 우선적으로 좀 풀어야 하는 게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이 5·24 조치가 내려지게 된 경위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에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인명 살상이 된 그런 중대한 안보적인 도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24의 원인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5·24는 준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후덕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남북정책은 아마 대결과 갈등이었을 겁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남북정책은 평화와 상생 그리고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실제 그런 조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예속되어 가는 속도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 3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북한 상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갈등과 대립의 상황을 그대로 지속해 가면 계속 중국에 예속되고 남북 간 경쟁력의 시너지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 쪽이, 남쪽이 북한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어찌 보면 영원히 상실될 수도 있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정리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하셔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장관님, 특별히 답변 안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백재현 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금강산관광과 관련되어서 아직도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금강산 기업인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글쎄요, 제가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장관님이 한 번도 만나 주지를 않았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제가 새 정부 들어와서 장관 된 이후에는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난 1998년인가요, 5년 전 박왕자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해요, 그분들과 내가 직접 면담을 해 보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차관인가 이렇게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요.

○백재현 위원 '왜 안 만났느냐?' 그러니까 '현대아산의 협력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 만났다고 그래요. '현대아산만 얘기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저한테 주장을 하고 상당히 그런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만나 주시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좀 만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지금 닦고 있는지를 느껴 보셔야 돼요. 애들이 멀쩡히 학교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 부인들이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고 전부 파산 나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획기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적어도, 지난 5년 동안에 추석 때 기업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지요, 하도 어려우니까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그래요, 추석 즈음에. 이번 추석에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MB정부 때, 지난 정부 때 하도 거기에 대한 실상이 보고가 들어오니까 위로금

형태로 일부씩 지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된 얘기니까 사실일 거예요. 아마 이번 추석에도 적어도 그런 조치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지금 터트려야 됩니다. 기업들은 하루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자꾸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내용이 구체화되고 신뢰를 쌓아 가지고 천천히 열겠다 한다면 정말 하세월이에요.

기업들은 그런 일을 시작해야 외국에서 오더를 받고 뭔가 앞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자꾸 정부가 언제 할지 불투명하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바로 그 공단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시한이라도 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9월 말까지는 가동 꼭 시켜 주겠다라고 기업과 약속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끔 기업들과 약속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빠를수록 좋지만 정 그것이 안 된다면 날짜라도 픽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예상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겠어요, 외국하고 계약도 할 거고? 국내에 있는 관계 회사하고, 연관 회사하고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가고,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상대가 있어서 안 됩니까, 북이 있어서?

○통일부장관 류길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두고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고 거의 이 의견이 수렴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릴 겁니다. 1차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공단 재가동을 위한 그런 직접적인 논의뿐만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활동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백재현 위원 그러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우선 그게 열려야 됩니다, 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요.

○백재현 위원 그건 국민의 염원하고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고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인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 지금 가시게 되면 전기가 우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용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통신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런 기반시설들도 지금 우리 인력들이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그 기반시설 인력들이 들어가서 체류를 하면서 그걸 다 보수하고 가동을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기업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기업이 들어가서 우선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자기 공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그 기간산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금주 내에?

○참고인 정기섭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다음 주 중이면 수도·전기, 가능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뒤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얘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애절한 얘기를 우리 장관님……

○통일부장관 류길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생각이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가동을 시작하겠다 한다면 대단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정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류길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지금 거듭 위원장으로서도 지적하지만 입주기업들은 내주면 전부 다 될 수 있다 하는데 장관께서는, 물론 방금 백재현 위원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위원회가 거의 합의되어 가고 있고 곧 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 정상화, 후 합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업주들의 애로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협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350년 걸릴 거냐, 그런데 저도 북한 가서 접촉을, 이산가족 제가 합의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북한의 인적자원이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많이 하자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응할 수가 없지요? 그건 답변……

아니, 우리가 300명·400명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북한에서 한꺼번에 300명·400명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현실적으로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예,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산가족들은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많이 작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박차를 가해 달라 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DMZ평화공원 이 문제도 접경지역의 여러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공원도 중요하고 자연생태 보존도 유엔기구나 국제기구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끝났습니다, 오후에 하세요.

○안민석 위원 아니, 장관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박지원 하세요, 하세요.

○안민석 위원 아까 저희가 밀가루 반입 승인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답변이 '5·24 조치 이후에 밀가루 반입 승인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류길재 5·24 조치 이후부터 그렇게 딱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안민석 위원 아까 잘못 발언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밀가루 빨리 올려 보내 주세요.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책자에도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지금 윤후덕 위원께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 차원에서 우리 남북관계특위 위원들이라도 개성공단을 한번 방문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램케 유엔스포츠특별보좌관을 한번 면담하도록 해서 통일부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개성공단 업자들이 나와 계시니까 통일부 차관과 이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개성공단 업자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정식 위원회를 열든지 불연이면 간담회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진출업체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내륙기업 이런 분들도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면담 혹은 위원회에 나오셔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정보다 약 20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장관 업무에 이렇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도 늘 협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3시 반에 하시지요.

○위원장 박지원 3시에 합시다.

통일부에서는 장관님은 가시고 차관 등 실무자들이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원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행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후에는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차관이 더 실무적 사항이

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세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업체와 현대아산, 금강산관광 업체 그리고 내륙에 간 업체들과도 한번 간담회 혹은 위원회를 가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특히 개성공단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렇게 계속될 것을 짐작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우 간사님, 차라리 한 10분씩 한 번 하고…… 7분 하는 것보다 기회를 더 주고 한두 번 하다 끝내는 것이 안 좋겠어요?

○김영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지원 예, 백재현 간사가 아직 안 오셨는데 우리 간사부터 기합을 좀 받아야 돼요.

10분씩 질의응답 하시고, 충분히 하세요.

○안민석 위원 바닥을 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박지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실 분 있으면 하는데……

○안민석 위원 밑천이 달려서 더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안민석 위원은 10분도 못 하고 한 8분에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협 위원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 좀 저기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재개 합의와 관련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 대북정책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칙의 승리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보시기에 이번 합의문에 관철된 원칙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희 실무협의 하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것은 아시다시피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음이 없이는 재개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북측의 보장을 받았다 이런……

○김경협 위원 이번에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보통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문에 일방적인 통행 제한, 일방적인, 한쪽이 일방으로 근로자 철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도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당국 간 협의해서 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국제화라든지 어떤 발전적인 것에 합의를 함으로써 그게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자 이런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그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합의문에 보면. 노력한다, 일종의 선언적인 성격이고요.

아까 오전에 이종훈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원칙이 정말 제대로 관철이 된 거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합의문에 '개성공단 조업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구체적으로 북측에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은……

○김경협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북이 재발 방지를 보장한다' 이런 대책도 없습니다. 남북이 같이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노력한다 이런 거고요.

개성공단 재가동 날짜가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김경협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남과 북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선언적 합의의 내용이고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향후 합의할 사항들을 죽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의 잠정 합의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것을 두고 자꾸 '원칙의 승리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마치 북이 굴복을 해서 얻어 낸 것

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지요.

자칫 개성공단이 폐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협상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원하고 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합의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평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보시기에 이런 표현들이 이후 남북 간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원칙의 승리다’ 이렇게 앞장서서 정부가, 통일부에서 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주안점은……

○김경협 위원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신뢰와 원칙의 결실. 여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원칙의 승리’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 방식이 과연 이후에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뢰프로세스에 부합되는 방식이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도 당정협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성공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재발방지였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라는 것이 남북 간의 기 싸움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김경협 위원 아무튼 그런 표현들은 어찌됐든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프로세스 좋은데 그러한 표현들을 때로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상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별로 불필요한 감정적인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냥 이렇게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일정 정도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를 죽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관님, 만약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것에 따른 어떤 대화와 협력을 해 나가고 대신에……

○김경협 위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프로세스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보다 더……

○김경협 위원 아니, 북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억지와 압박하고 대화와 교류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에는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신뢰프로세스는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면 냉전프로세스로 바뀌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꼭 그런……

○김경협 위원 불신프로세스로 바뀝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억지와 압박,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억지와 압박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러면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풀어 나가자 그런 것이 기본 축이고요,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놓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남북관계, 남북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7월 말에 보수 33명, 중도 40명, 진보 32명 이렇게 해서 북한 관련 전문가 105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 신뢰 형성이 안 되면 교류·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즉 다시 말해서 이 응답은 아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동의하는 성격을 가진 응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수 전문가가 12.1%, 중도 0.0, 진보 0.0, 전체적으로 3.8%가 이 접근 방식을 지지를 했어요. 반면에 타협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에는 응답자의 69.5%가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72.2%, 중도 75%, 진보 59.4%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전문가들은 북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수인 68.6%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화 시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민간경제 협력을 통한 대화 시도도 24.8%나 되고, 신뢰는 압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게 도대체 명쾌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받는 어감도, 국민들도 사실 '저게 지금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작동을 하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홍보 과정들을 보면서 '일정 정도 압박을 해서 굴복을 시켰다' 이런 투의 홍보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신뢰프로세스에 의하면 기존에 남북 간의 합의서들 있잖아요? 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행할 의지도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언적인 문제라든지 추후에 후속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는 존중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이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지요.

그다음에는 홍익표 위원 준비해 주세요.

○이이재 위원 지금 보고를 보면 현안사업 위주로 네 가지를 설정해서 오늘 현안 위주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현안질의가 또 사실 다 관계된 일이기는 하지요.

지금 인도적 지원은 한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한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이이재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되고 또 추가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고 보는데 5·24 조치 해제 없이도 추가적인 경협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5·24 조치에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24 조치 해제 없이 어떤 활발한 경협사업이 진행된다든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5·24 조치 해제의 조건을, 전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어느 정도, 무엇이 충족돼야 그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 부분은 정부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아이템들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게 너무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5·24 조치가 왜 발생한 것이지요? 5·24 조치의 배경……

○통일부차관 김남식 북한의 천안함 사건이지요.

○이이재 위원 천안함이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우리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이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뭐냐 이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래서 그 조건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템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북한과의 협의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남북 간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가령 그

렇게 5·24 조치가 해제돼서 추가적인 경협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나간다면 정부에서 남북경협 관련해서 생각하는 구상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것은 공약에도 밝혔지만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와 단계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 폐기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그다음에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이런 것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단계가 오는 때도 상정해서, 대비해서 미리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경협과 관련된 사업들은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그 가운데 역대 정부가 늘 한반도 평화체제 속에 일정 단계에 가서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종단철도(TKR) 그것이 TSR이나 TCR과 연결해서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이런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능한 문을 여는 작업은 역시 통일부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노선이나 추정 예산 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내부적으로 TKR·TSR 문제는 최근이 아니라 과거부터 여러 번 검토된 사안일 뿐이지요.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와 관련돼서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북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러니까 만날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추상적인 발언만 하실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온다고 봤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6·15보다도 특히 10·4 선언에 보면 남북, 우리가 투자해서 해야 될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이이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구체적 준비…… 계속 검토한다고 그래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북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이런 부분도 노선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럴 것이다라는 검토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검토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일시대를 준비한다고 모든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런 데 대한 추정을 미리 해 놓지 않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 위원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리고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 추정 매장량과 추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광물자원공사에서 7000조로 추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00조, 그런데 추정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광물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 얘기가 나오면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요. 저는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편익이 그야말로 평화라고 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요즘 사람들이 금액을 좋아하니까 금액 관점에서도, 그다음에 남북 경협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하는 것들이 가져올 이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안 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은 주로 어느 간부님이 담당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교류협력국하고 정책실하고 합해서 있는 그런 문제……

○이이재 위원 그러면 천해성 정책실장님!

○통일부통일정책실장 천해성 예.

○이이재 위원 이런 부분에 해박하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통일정책실장 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그런 관점에서 통일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처 업무를 설정하고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유념하겠습니다.

○이이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윤후덕 위원 준비해 주십시오.

○홍익표 위원 우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홍보책자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한 번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에서 '올바른'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북한의 선택을 올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를 들어서 도발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가장 그릇된 행동이고요. 그렇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든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또는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르다는 것의 기준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게 올바르냐를 놓고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컨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순하게 기준이 되겠지만 개성공단 문제 해법이라든지 금강산 문제 해법에 남북 간의 이견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이것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복잡한 사안을?

○통일부차관 김남식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핵 무장을 계속 한다든지 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거나, 정부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책 홍보자료를 낼 때 추상적이거나 자의적 표현은 줄여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예컨대 원칙 있는 대북정책, 과거에는 원칙을 포기했다 그러면 지난 정부의 어떤 원칙을 포기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과거 포용 위주의 정책에서는 원칙이 흔들렸다 그러는데 어떤 원칙이 흔들렸습니까? 통일부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그때는 뭐가 잘못한 것이지요? 어떤 원칙이 흔들린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다 이렇게 제가, 특히 과거 정부 일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홍익표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지난 정부하고 차별성 때문에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내지는 뭔가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상 남북관계 교류·협력이 1998년도 김대중정부 출범하면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게…… 그때는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였지요, 솔직한 얘기로. 원칙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원칙을 만들어 가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정부 때는 지나치게 핵 문제에 올인 하면서 다른 모든 교류·협력이 중단됐고 지금 들어와서 다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저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나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늘 상임위에서 얘기하지만, 일정 부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홍보자료를 만들 때 상당히 정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lignment'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국제정치학에서 'Alignment'는 '동맹'이라고 쓰이지 않습니까? 'Nonalignment' 하면 '비동맹'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 가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자문교수가 'Alignment' 쓸 때는 사실은 균형이라는 얘기보다는 일정하게 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가 이후에 균형으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휠 얼라인먼트(wheel alignment)까지, 기계학적 설명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즉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모든 부분이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 이런 측면이 맞는 것이지 '균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차라리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이라든지 다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런 홍보자료라는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에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보 때 만들었다고 해서 꼭 후보 때 썼던 단어를 정부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단어를 잘못…… 여기서 대통령께서 '균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안보와 협력을 균형 한다든지 대화와 압박을 균형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이것은 'Alignment'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coordination'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 때는 자의적 해석이라든지 또는 다른 국제사회에서 모호한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서 대통령의 구상이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꼭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한 번도 현 정부, 박근혜정부는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차관께서는, 지금 통일부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지금 당장, 북한의 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킹 대사 들어가신 것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그다음에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도 북한에 들어갔고요. 중국과 미국, 북한 간에 상당히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미 북한이라든지 또는 미국에서 지난번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상·하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어요. 그냥 '평화 구상', '지속가능한 평화' 이것은 도리어 지난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더 후퇴한 느낌을 줍니다, 표현상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성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 있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 미래지향적인 것과 관련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있는데 현재 통일부조차도 또는 현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마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칫하면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북한의 구상이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는 절대 언급하거나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간다는 것은, 올해가 벌써 정전협정 60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사회단체에서든 또는 국내외에서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를 시작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상대적으로 주무 부서인 통일부 입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책은 계속 진화하니까, 여기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낼 때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좀 설득하시고, 아

니면 국회하고 소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문제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FAO에서 금년도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홍익표 위원 기본적으로 식량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북한경제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다소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통일부에서도 그런 평가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부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식량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부문별로 저쪽이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어떤 첩보나 이런 수준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떻다 이런 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경제 상황이나 식량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인도적 지원은 한반도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하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허용된 건수가 실질적으로 유니세프를 통해서 2건 정도 외에는 없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 최근에……

○통일부차관 김남식 5건……

○홍익표 위원 허용이 돼 가지고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민협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 5개는 허용이 됐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됐고요, 일부 단체는.

○홍익표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한데, 저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개발지원과 맞물려 가지고 가야 될 문제, 특히 농업 문제는 식량 지원 문제도 같이 포함돼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과거 NGO단체 쪽에서 많이 했던 게 농업 개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인도적 지원 플러스 개발지원까지 묶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인도 지원 중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인도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개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나중에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보다는 어쨌든 개성공단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하면 그런 것 이후에는 조금 더 인도적 지원에서 지금보다는 그 수준과 폭,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그만큼 진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차관도 웃옷 벗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기획조정실장도 벗으시고요.

다음에는 민주당 윤후덕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안민석 위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안녕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후덕 위원 2007년 같이 고생한 기억이 나네요. 주남장 여관인가요? 회담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맨 마지막 줄도…… 한번 보세요. 보고서 5페이지에, 오늘 보고서 맨 마지막 줄도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끝이면서 이게 확대돼야 상호 간의 신뢰가 더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취임 6개월 동안에 6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만 2차례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쳐야 21억 원 정도, 다행히 얼마 전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550만 불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후덕 위원 이 정도입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이 무지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동들에서부터, 교육 보육에 해당하는 아동들부터 우리 식으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취약계층이 있으리라고 추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문구대로 한다면 상당히 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단체에서 신청해 놓은 것도 그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폭을 더 확대하고 정부가 민간단체에도 여러 각도로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5개 단체에 15억 원 정도 상당만 지금 허용이 돼서 이미 넘어가고 있고 모니터링도 갔다 온 단체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단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그러면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우리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쌀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아선상에 있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정부 간의 지원 그런 문제는 물론 식량이라는 문제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대규모 당국 간 지원의 경우에는 남북 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정부 간의 지원은 아직 활성화시킬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다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라도 적극 권장하고 정부가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의 아주 절규를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정부 입장은, 아까 장관님의 입장은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의 진전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종속변수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어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이것은 국내의 기업인들, 또 국내 관여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다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의 진전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 후에나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순서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설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일단 조업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진전에 따른 협상은 협상대로 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은 어떠세요, 의견이?

○통일부차관 김남식 개성공단하고 금강산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개성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기 조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남북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서교환방식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그래서 1차 회의라도 열고 또 그런 당국 간의 협의는 협의고 그것 말고도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기가 지금 배전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그것 이번 주까지 다 된답니다. 전기도 다 되고 물도 다 된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시점을 제가 약속을 못 드

리지만 이게 배전방식에서 송전방식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고 그것은 위원님……

○위원장 박지원 차관, 아까 오전에 장관께서 이번 주까지 다 되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다 된다고 그랬어요. 차관은 더 실무적으로 아시니까 잘 답변하실 걸로 알았는데 또 꼬리 빼면 안 되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하여간 취지는……

○윤후덕 위원 그래서 조업 재개를 바라는 입주기업인들의 가슴이 타들어가요.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의 애가 타는 것도 해결을 못 하면서 무슨 큰 틀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관계 개선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우선 우리 국민의 어려운 처지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관계 개선의 제일 급선무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맞습니다. 하여간 기업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다시 출발했는데……

○윤후덕 위원 그게 물·전기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 이번 주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좀 더 전향적으로 화끈하게 합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취지……

○윤후덕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합의하고 운영한다 그랬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윤후덕 위원 이번의 합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협의나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운영합의서를 지금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위원 좀 만나서 해요. 문서교환방식이라는 게 최하급의 협상방법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달 안에는 좋은 소식이 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제가 몇 월 며칠,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기존의 공업지구에 관한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관리위원회 있고요.

○윤후덕 위원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을 왜 새로 이런 기구를 구성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것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북측 법인입니다. 그리고 북측 법인이 북측의 총국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고요. 물론 협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은 당국 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당국 간 협의기구예요. 그래서 당국 간 협의기구는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들, 일방에 의해서 조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조업 중단은 당국 간에 틀어져서 조업이 중단되잖아요. 좀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DMZ 내 평화공원을 만드는 얘기가 너무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연월로 치면 5월 초에 대통령께서 방미하셔 가지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연설하셨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5월 8일.

○윤후덕 위원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방한하셔 가지고 8월 26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데도 이 말의 전제조건은 남북한이 우선 좋은 협의를 이루어낸 진전이 있으면 유엔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쪽의 DMZ만 평화공원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궁극적으로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양쪽의 일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이것 협의해 봤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그러니까 몇 ㎞ 이런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결국은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감을 가진 사실이 있냐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직은 북한에게 구체적으로 제의한 적은 없고요, 대통령께서……

○윤후덕 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혼자 얘기하고 국제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제의를 해 놓은 상태지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에 원칙적인 제의를……

○위원장 박지원 윤후덕 위원, 정리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런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북한의 반응이 한 토막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한참 전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은 나왔는데 그것은 반응이라기보다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그것은 김양건 부장이 평화자동차 사장, 물론 민간 레벨이지만 잘하면 DMZ평화공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차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게 세 분의 개성공단 대표들이 나와 계세요. 저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국회에 나오셨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주까지는 다 된다'. 그러니까 특히 섬유류 같은 것은 다음 주문을 받으려면 9월부터 정상화를 시켜 달라 해서 지금 저는 차관이 좀 더 실무적으로 잘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았는데……

장관은 그랬어요. '공동위원회가 거의 합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내주까지 전부 다, 모든 물·전기 이런 게 금주 아니면 내주까지 다 된다' 해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기대했는데 차관 말이지, 그냥 웃으면서 슬슬 넘기려고 그래?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장님……

○위원장 박지원 지금 그러니까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되어야 개성공단 가동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일단 공동위 구성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장관님께서 저도 다 모니터링 했는데 '다음 주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나 전기 이런 기반시설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다 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위원회도 거의, 내가 기록을 해 놨어요, 한다 했는데 지금 차관 말씀은 '공동위원회를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회의가 되어 가지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가동이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남북 간의 합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남북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제가 남북관계특위 1차 회의에서 북한 갔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했어요. 제가 6·15 정상회담 때, 우리 천해성 실장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시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인데 '장관 선생, 내가 남쪽 출판물, 출판물은 책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데 왜 그렇게 자주성·주체성 없이 외국어를 많이 쓰느냐' 하고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6·25 이후 반세기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세계화 과정에 외국말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국어화돼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노래를 하니까 그렇게 외국어 쓴다고 비난하던 김정일 위원장, 박수를 치면서 '앵콜, 앵콜' 하는 거예요. 앵콜이 북한말이에요? 저도 상당히 고약한 입을 가져서 한방 진짜 날릴까 하다가 그 순간 저는 느낀 거예요. '아, 남북관계는 북쪽의 눈높이로 바라봐서도 해결 안 되고 남쪽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해결 안 된다. 결국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봐야 해결된다' 하고 또 제가 앵콜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남북관계라는 게 지금까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면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볼 때는 개혁·개방이 미진하지만 북측에서 볼 때는 엄청난 개혁·개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보세요. 지금 핸드폰이 200만 대 내외라고 그러지요? 인터넷을 얼마나 쓰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IT 강국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쓴 게 십삼사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사회도 엄청난 개혁·개방이 됐고 우리 연속극을 다 보고 김일성대학생들은 우리 드라마 안 보면 대화가 안 되고 헤어스타일, 여성의 패션, 애들 이름, 초코파이계, 사실상 한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선이후난(先易後難) 하시라니까요.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것은 뒤로 남기는, 구동존이(求同存異), 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정상화하고 공동위원회 안 할 수 없어요, 북한이. 중국한테 혼나잖아요. 미국한테 혼나잖아요. 우리가 생각치도 못했지만 킹 특사가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차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123개 업체가 지금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좀 잘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개성공단 세 분 대표들이 와 계시니까 저분들의 애로도 듣기 위해서 그쪽에다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이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설훈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예.

○설훈 위원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세 분의 관계자들이 와 계십니다, 기업 하시는 분이. 저분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그냥 묵묵부답 쳐다만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상임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공청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아까 들었어요.

○설훈 위원 아까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김 위원장 앞에서 불러서 앙코르 받았다는 그 노래 곡목은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좀 밝혀 주시기를……

○위원장 박지원 '내 곁에 있어 줘'입니다.

○안민석 위원 점심 때 여야 위원님들이 위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장관이 실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반론을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사실 남북특위가 열린 게 개성공단 일정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 말씀을 장관님께 듣는 게 오늘 특위가 개최된 최고의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일정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위 뭐 하러 엽니까? 아니, 장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일정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 못 하시지요? 구체적인 일정 가지고 있는 게 없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안민석 위원 프로세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걸 역산을 하면 '언제쯤이면 뚫립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할 수 있으세요? 언제 열립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으세요, 언제 열릴지?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차관도 모르고 장관도 말 못 하겠다고 그러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 정부 내에서 실권……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제는 아니고……

○안민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면 언제까지는, '앞으로 보름 후에는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 특위 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왜 실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개성공단 언제 열 수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안민석 위원 차관이시잖아요. 차관이 이거 언제쯤 열릴 거라는 이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게…… 셈이 안 나와요? 이 셈이 그렇게 어려워요, 간단

한 건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거를 확정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안민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언제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까? 빠르면 언제, 늦어도 언제까지,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협의도 남아 있고요.

○안민석 위원 이게 무슨 정부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남북문제 가지고 광이나 팔려고 하고, 이거 되겠어요?

두 번째 말이에요, 통일부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식 30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오래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 하면 '아' 했을 겁니다. 장관은 자꾸 금강산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신변안전 문제, 재발방지 문제 이것 북에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8월 18일 날 조평통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거 한번 읽어 볼게요. 북한 대변인 이야기예요, 조평통.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의 조평통 대변인의 이 정도 이야기면 남측의 요구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년 근무하셨으니까? 이거 북에서 이야기 안 한 겁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서 '재발방지, 신변안전 그다음에 재산권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북이 남측에서 요구하는 거 이 정도 워딩으로서 수용됐다고 보는 게, 통일부 30년 근무한 관료로서 그렇게 수용이 안 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이것은 30년 근무 문제는 아니고요, 북측과 만나서 실무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됐다' 그러는 거지…… 군대 가 보셨지요? 고참이 신참 기합 주면서 '복창해 봐. 크게 해 봐', 관등성명 크게 불렀어요. '작아. 다시 해', 진짜 크게 불렀어요. '그것밖에 안 나와? 다시 해 봐' 그런 식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 거지요. 그런데 자꾸 안 했다고 그러고……

세 번째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통일부 문건에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은 정치적 사항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는 해 놓고서 옥수수, 밀가루, 분유 이거 누구한테 줄 거냐?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명에게 주려고 민간단체에서 6월 20일 날 물자를 모아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는 하고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아이들에게 줄 이 곡물들을 갖다, 이 분유를 갖다가 두 달 동안 왜 안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왜 안 주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품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전용 문제,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되고 전용이 안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5개 할 때는 그런 품목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했고요.

○안민석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아이들이 두 달 동안 그거 기다리다가 배고파 죽어요. 이런 게 비인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간다는……

○안민석 위원 어린이만큼 취약계층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 노인…… 빨리 주세요. 장관님도 이거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고 차관님도 그냥 눈만 끔벅끔벅 그러시고, 도대체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차관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차관으로서 '그거는 위원님 이야기가 타당한 것 같다. 장관님께 보고를 바로 드려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특위가 열리는 맛이 나고 성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인도적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민석 위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말고요. 빨리 보내 주시면 되는 건데 만날 검토하다가, 애들이 배가 고파 죽을 판인데……

다음 질의 드리겠는데요.

오늘 평화공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너무 어려운 일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쉬운 게 스포츠교류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동아시아 축구대회 할 때 우리나라 여자선수가 넘어졌을 때 북한 여자선수가 다리 주물러 주고 마사지해 주던 그 장면 보셨지요? 사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우리가 하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이 정부에서 한번 해 보라고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로 경평축구 부활인데요. 이명박정부하에서 지난 장관까지, 통일부장관이 경평축구대회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 한번 해서 해 보겠다 이야기했어요. 신임장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뭔가 테이크 오버(take over), 인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경평축구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하고 얘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안민석 위원 외교부나 유관기관하고 논의해 본 적도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경평축구 관련해서는 어떤 스포츠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가 논의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지금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U대회 있지요, 15년? 그런데 이게 시기가, 평화공원을 10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15년 U대회를 남북 단일팀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단 회의를 해야 돼요. 2006년에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단일팀 회담한 것 아시지요? 이걸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남북회담을 시작을 해야 돼요. 선수 구성부터 깃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위원장님께 혼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훌륭한 위원이 안민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설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구성이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간판인 것 같고 남북정책을 결정하는 그 책임자는 따로 있으니까 통일부가 전연 답변도 못 하고 결정도 못 하고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통일부 직원들이, 장관 이하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가 통일부의 위상을 제대로 찾자. 남북관계의 일은 적어도 통일부가 결정하도록 하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정부 때 통일부를 없애려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들 처지를 동정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개성공단 조업 재개도, 지금 세 분이 계시지만 저분들은 하루가 바쁩니다. 그건 국민 일반이 보는 시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장관은, 차관은 지금 '언제 조업하겠다'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은 빨리 하라는 건데.

더군다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목이 타고 있습니다. 날짜도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국정원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누구냐? 남재준 원장 이하 그 강경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전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참 그분들이 남북관계를 망치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이 격화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가락이 가려운데 가죽신 위에서 긁고 있어요. 이런 위원회는요, 시간낭비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통일부 여러분들이 힘을 내세요. 대통령께 직언을 하든지 구조를 바꾸든지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국민에게 호소를 하든지, 틀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차관이 양심이 있다면요, 가만히

있든지 달리 생각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내 말이 옳다고 그럴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차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개성공단……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자꾸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차이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나는 통일부가 그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현격히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라고, 몇 날 며칠 세미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견해차이를 좁히는 일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바라는 바는요, 통일 문제에 제일 강경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 설득하고 싶어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애정이 강해요. 그런데 방법을 달리하니까 이거는 애정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해악이 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거꾸로 볼지 모르지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교도를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동·서독 통일 관계를 보십시다. 흔히 우리 햇볕정책을 퍼 주기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서독 관계 차관도 잘 아시겠지만 서독이 동독에 준 것은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퍼 주기가 아니고 덤프트럭으로 쏟아 붓기를 했어요. 결국은 동·서독이 통일됐습니다. 동독 국민들이 서독으로 다 넘어와서 통일되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됐습니다. 그 결과는 그랬어요.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남북정책의 제일 좋은 방법 아까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교류예요, 교류. 통일부가 민간교류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활성화시키고 정부 간 활성화시키고 해 보세요. 김정은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교류 외에 뚫는 길은 없어요. 개혁·개방?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 교류하면 돼요. 왜 그걸 못 하세요? 10원 줘서 1만 원을 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햇볕정책은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나는 10원 줘서 1만 원 버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 간단한 데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먼저 해야 될 건요, 대북관계 정책도 좋지만 대남 내에서, 우리 내부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대화를 많이 열도록 하십시오. 그게 나는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차이를 좁혀 놓지 않으면요, 너무 낭비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 거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걸 유일하게 하려고 했던 게 민화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화협 내부에서는, 내가 민화협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국민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돼요. 소위 어버이연합회에 계신 분들하고 진보단체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끔 주선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북한하고도 대화하는데? 나는 그분들이 대화를 하면 그 사이에서, 한 이삼일 같이 세미나를 하면 충분히 해결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하십시오. 그게 더 급해요. 우리끼리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까이 접근시켜 놓지 않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일을 통일부가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가서 해도 좋고. 국정원은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통일부가 좀 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정부 내 조율이 필요하고, 거기서 통일부가 역할을 잘해 달라 이런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진보·보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는 간판만 있고 책임자는 따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또 토를 달면 좀 그렇지만요, 실제로 정부 내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며칠까지 재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간판만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문제, 남북협의 문제, 그런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박아서 '9월 중순입니다' '10월 초입니다' '8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뿐이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걸 일부러 늦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통일부를 나무라기 위한 게 아니고 통일부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대북문제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왜 남재준 원장하고 우리 당 의원들하고는 대화가 안 될까요? 나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면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찬성할 사람이 몇 %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0.1%로 봅니까, 0.01%로 봅니까? 없습니다. 뭐를 두려워합니까? 뭐가 걱정돼서 대북관계를 그렇게 과감하게 못 합니까? 모든 게 다 결정 났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균형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저쪽이 무슨 우리하고 상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를, 물론 북쪽이 하고 있는 일이 참 고약하기 짝이 없고 감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방법이 좋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냉정하게 가야 돼요, 냉정하게. 일반 국민들은 시원시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그게 남북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게 가면 남북관계는 더 틀어지고 비용은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개성공단 유창근 선생님!

○참고인 유창근 예.

○설훈 위원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는데 에스제이테크를 하시면서 피해액이 지금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참고인 유창근 저희는 회사 내 피해 추산액이 한 3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설훈 위원 30억요? 그러니까 문 닫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나온 게요?

○참고인 유창근 예.

○설훈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공장 가동해 가지고 그동안 이익 본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참고인 유창근 개성공단 가동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30억 적자가 나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훈 위원 적자가 나 있었어요?

○참고인 유창근 예.

○설훈 위원 아니, 가동하면서 그렇게 적자가 났었다고요?

○참고인 유창근 개성공단에 저희가 장치산업 쪽이다 보니까 장기간 교육·훈련시키고 해서 결손이 약 30억 정도 나서 올해부터가 사실 장기 교육으로 인해서 터닝포인트였는데 올해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는 개성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에스제이테크는 독특한, 특별한 경우겠네요?

○참고인 유창근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을 처음서부터 들어가서 했었기 때문에 R&D 기반으로 해서 10년 정도를 북한인력 교육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당한 교육비용이라든가, 또 2009년도에 이미 남북 리스크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글로벌기업하고의 거래를 중단을 당하는 바람에 거기에 전용 라인 있던 것을 하나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커 가지고 불가피하게 업종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남북경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공업지구에서 발전을 위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설훈 위원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북쪽이 또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까, 느낌으로?

○참고인 유창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북쪽이 지난번에 자충수를 두고 나서 아마 상당히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발 방지가 약속이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정도로 합의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전향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좋습니다.

차관 들으셨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설훈 위원 이제 개성공단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북쪽이 이제 못 그래요. 북쪽이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해요. 이번까지는 내가 볼 때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정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빨리 가동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지원 설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백재현 간사, 김영우 간사 두 분 남아 계시는데 김영우 간사님 혼자 계셔서 수고 많으신데 한번 질문하시지요.

○김영우 위원 차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저희가 안보도 해야 되고 또 남북교류도 해야 되고 정말 두 가지 다 중요한데 두 가지 다 또 어려운 문제고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히 접경지역이 지역구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분리를 좀 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북교류, 또 남북교류의 여러 가지 다각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교류의 거점도 다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DMZ세계평화공원 그 구상이 처음 발표됐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정말 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그냥 단순한 사업으로 전락을 해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으로 자꾸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염려가 돼서 오전 질의 때 'DMZ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접경지역 의원으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평상시에 DMZ 접경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는가……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접경지역' 그러면 굉장히 먼 나라, 아주 외지고 또 군부대만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으스스한 이런 분위기로,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는. 어떻게 보면 남북소통 이전에 이것부터 불식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DMZ 접경지역이 너무 황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저는 사실은 기재부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통일부에서도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집행부,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정부의 권한이 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통일부가 목소리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경지역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가 DMZ세계평화공원을 아무리 어디건, 어느 지역이건 만들어 놓은들 찾기가 어렵고 방문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세계평화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지요. 지금도 사실 접경지역 가보면 공원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두루미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DMZ세계평화공원은 대통령께서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국방위원도 했었고. 지뢰 제거해야 되지요, 또 여러 가지 토지의 소유권 문제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 문제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국제법 관련된 것도 있고 유엔 관련된 것, 그렇지요? 또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좋은 구상입니다마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아까 7월 달에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 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플랜 정도가 나오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배후지역이지요. 그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자체에서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벨트가 아니라 어떤 존(zone) 개념으로 갔을 때는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좀 생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MZ세계평화공원은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세계와의 소통, 남북 간의 소통 그런 과정 위에서 만들어져야 아마 지속 가능한 공원이 될 것이고—그게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지요—그게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DMZ세계평화공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입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강조를 하셨고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은 또 다른 분야를 강조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입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나 모든 문제들은 다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장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금강산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한에도 부담이 좀 덜하고 우리 쪽에도 부담이 덜한 그런 곳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면 우리 통일부에서 굉장히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가을이 완공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무회의 때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하기 위해서 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만나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기재부의 여러 가지 경제논리에 막혀서인지 통일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인지 이것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회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정말 청와대, 우리 주무부처 또 국무위원들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장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미래센터 같은 것은 정말 예산상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북한 쪽에서 황강댐 수문을 열면서 통보를 해 줬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한 번 통보를 해 왔었습니다.

○김영우 위원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통보를 할지 안 할지 불안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스템은 갖췄어요. 예전에 임진강 익사사고 이후에 우리가 군남홍수조절댐 이것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자연재해나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긴밀한 남북 간의 협력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 가지고 북한 쪽에 꼭 제의를 해서, 또 우리가 북한 쪽에 줄 수 있는 도움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서로 좋은 안을 만드셔 가지고 저는 하루빨리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미래센터는 내년도 완공 계획으로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완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와 관련돼서는 남북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정말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면 대북협의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재현 간사께서……

○백재현 위원 경기도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차관님, 제가 오전부터 죽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위원 모두가 '통일부가 대단히 자신 없어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자신감 갖고 주도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것,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을 못하면 내부에서 결단을 하든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든 뭐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되겠어요? 좀 답답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강산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5·24 조치 문제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한번 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핵심은? 지금 자꾸 우리가 제안한 것하고 저기서 다시 바꿔 다시 수정하고 그러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백재현 위원 9월 25일 날 실무회담 제의했는데 우리는 다시 또 일주일 연장해서 10월 2일 날 하자……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그렇게 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 이유는 9월 25일부터 말일까지 5일간 가족 상봉 끝난 후에 하자 이런 취지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게 9월 25일인데 25일 날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랑 겹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하자 그런 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이게 국가 간에, 이렇게 남북 간에 큰 적십자 단체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전략적으로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매듭을 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기웅 단장님 계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김기웅 단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일곱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의서 내용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딴지를 걸고 싶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든 합의문이다 이렇게 보면서……

뒤에 우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세 분이 와 계시지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합니까?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으면, 지금 합의서에는 많은 일들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토록 돼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있고 들어가 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가동 시점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합의가 매듭이 돼야만 공단 가동이 가능하냐고, 협의된 내용이냐 이걸 묻습니다.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언제 재가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세금, 사용료 이런 징수 시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버스 전체 운행해서 출근하는 문제도요, 근로자들이 얼마나……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긴급 출경을……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우리 인원이 있는데 긴급 출경을 해야 되는데 긴급 출경 시스템이 아직 점검·정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협의가 남북 간에 완료가 돼야 우리 인원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필요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필요한 것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우선 가동을 시켜 놓고 그 후에 협의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아니, 우리 인원이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전력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원들이 가동할 수 있는 안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한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그거 한두 해 운영을 해 봤던, 우리가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봤고 가동해 봤고 그때도 응급환자가 발생됐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크게 사람이 죽어 나가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동시킨 이후에, 가동을 해 가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여기에 협의한다고 돼 있는 것 중에 노무, 세무, 임금, 보험 이런 것까지 전부 매듭이

돼야만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실무를, 실제 협상을 했던 당사자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그 안건 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일찍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재가동 시점과 모두 연계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전문에…… 합의서에 돼 있는 전문에 대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협의가 끝나야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그 사안들이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공동위를 통해서 제도 개선해 가는 문제가 있고 공동위 분과위에서 앞으로 계속할 일들이 있고, 재가동 문제는 그 앞에 써 있는 대로 기반시설 점검 현황을 보면서 준비가 되는 걸 보고 남북 당국이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백재현 위원 좀 서 계시고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만 가동 상태로 돌아가면 가동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우리 실무단장, 그때 협상을 했던 단장의 얘기거든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아니요,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백재현 위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없으면 가동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아니지요.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고 아까처럼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 남북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남북 간에 가동되는 협의 시점이, 협의하는 내용이 뭐여야지 협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까? 뭐가 합의돼야……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예를 들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시운전이 있다든가……

○백재현 위원 그것은 기업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아니지요. 그 준비가 돼……

○백재현 위원 기업들이……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가동은 이번 주말부터 가능하다, 아까 용수·전력……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만㎾로 지금 전력이 배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현재도 2만㎾ 가까이, 설비 점검 중에도 거의 꽉 차는 정도입니다. 이게 송전으로 안 바뀌면 블랙아웃되지요.

○백재현 위원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서 바로 2만㎾, 지난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풀가동될 때의 시점처럼 그게 바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가 시작을 하는데……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정부로서는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백재현 위원 그런데 국민들의 시각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입주기업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다만 자기 공장이 100%, 100이라고 봤을 때 30만이라도 가동이 가능하면 30도 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지금. 왜 그 심정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차관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늦추고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14일 날 합의하고 바로 다음날 기반시설 이런 데 준비를 해서 토요일 날부터 지금 각종 시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늦춰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에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오전에 답변드린 것 들으셨지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예.

○백재현 위원 우리 기업체 측에서 '이번 주말이면 거의 매듭이 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그렇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용수나 전력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다' 이것까지 답변하신 것 들으셨지요, 오전에? 그거 들으셨습니까?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그것 부분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 안전 기업체별로 지금 전기안전공사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20개, 30개를 합니다. 총 210개 업체입니다. 열흘 정도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동안에……

○백재현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시는 개성공단 우리 정 기획분과위원장님!

○참고인 정기섭 예.

○백재현 위원 기업들이 보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참고인 정기섭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대질신문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참고인 정기섭 저희가 아는 부분과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고요. 제가 더 정확히 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우리 단장님 들으셨잖아요. 기업들은 준비가 다 됐는데 정부가 결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저희 전력·용수가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자, 전력·용수가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력·용수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참고인 정기섭 용수는 주재하면서 염소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실제 그쪽에서, 북쪽에서 주재를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력이 배전에서 송전으로 바뀌는 그 절차 자체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오랜 시간이…… 며칠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정 사장님 보기에는?

○참고인 정기섭 기반시설 자체는 다음 주 중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지원 지금 생중계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저쪽 마이크 가지고.

○백재현 위원 아까 단장님 들으신 것처럼 기업들은 내주 초면 다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진짜 통일부가 못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 국정원의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 야당,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것 통일부가 그런 판단을 결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잠깐만요.

답변하세요. 그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백재현 위원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용수와 전력은 다음 주 초면 가능하지요?

○참고인 정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협상했던 단장님, 가능하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제가 사업단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제 얘기가……

○백재현 위원 저는 기업의 말이 신뢰가 가는데요, 단장님 말씀보다는.

○통일부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그리고 차관님,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빨리 가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은 지금 하루가 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 봐야 겨울…… 봉제 같으면 겨울옷을 지금 주문해서 시작을 해야 될 단계예요. 그래야 선적해서 가는 거예요, 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착해야, 12월 달 들어가기 전에 그게 현지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개통하고 언제 가동한다는 말도 얘기 않고 날짜도 정해 주지 않고, 이걸 해야 된다면 끝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유념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분적이라도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홍익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자료요청 때문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예, 하세요.

○홍익표 위원 지금 차관께서도 그렇고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과 관련된 정상화 실태가 몇 %,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언제 시점까지 완료되는지를 자료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가능한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평화공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지금 마스터 계획은 어느 정도 콘셉트나 이런 것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야당에…… 이강우 평화공원단장님,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만이라도 챙겨서 제 방에 가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방에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아주 급하셔서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개성공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그 현상이 궁금하고 우려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실무회담 타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도 경협보험금 지급은 증가합니다. 그것도 어제까지 895억 원을 수령해 갔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 사항은 정부 예산과…… 아마 정부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정상화 합의 이전보다 정상화 합의 이후에 더 증가했습니다. 8월 14일까지가 6개 기업이 23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21개 기업이 665억을 수령해 갔어요. 남측 인원이 곧 북측 지역에 체류하게 될 것이라고 소식이 전해진 이틀 전인 8월 26일 하루만 해도 3개 기업이 107억을 수령해 갔습니다.

저는 보험금 신청이 이렇게 급증하게 되는 것이 혹시 입주기업이 공장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그럴까요,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훈 위원 제가 개성공단 대표자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이렇게 보험금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공장 내 시설의 자산 처분 권리를 정부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참고인 강창범 한 가지 정확하게 좀 알려 드려야 되는 게요, 보험이 지급되면 대위권이 수출입은행에 발생하게 되고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넘겨지지 않고. 또 보험이 지급됐다고 해서 공장들이, 회사들이 바로 개성공단 진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아, 그러니까 처분 권리를 정부에 넘기는 건데……

○참고인 강창범 대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종훈 위원 예.

처분 권리인 대위권을 넘기는데 다시 공장 하겠다 그러면 다시 돌려줘요. 그렇지요?

○참고인 강창범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보험금을 환수하는 대신 돌려줍니다.

○참고인 강창범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렇지요?

○참고인 강창범 예,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직접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참고인 강창범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지금 곧 정상화된다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보건대 정상화된다는데도 너무 급하니까 보험금을 일단 탔는데, 물론 이걸 돌려주면 다시 돌려받지만 급한 불을 끄기를 위해서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인 강창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해 보셨어요?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데.

이게 곧 된다는데도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막상 '자, 들어가세요'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걱정이 안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도 이렇게 지금 보험금을 계속 타가고, 지금 1000억 원 넘게 타갔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가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대위권 행사를 하게 돼 있고 대신에 기업한테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자금을 융통한다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어쨌든 저도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공장 가동 시기에 대해서 정부와 입주기업 간에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

결국 자칫하면 극단적으로 보험금 다 타가고 정상화는 됐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시설 돌리고 사업할 사람은 많이 줄어 있어서 유명무실한 정상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국자들 간에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그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투 트랙으로 공장 가동시기를 입주기업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당기는 거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가 지금 보험금 지급된 현상이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직책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강창범 예, 비상대책위원회 피해대책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강창범 사장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강창범 간사님?

○참고인 강창범 예.

○위원장 박지원 차관, 인도적 지원을 취약계층에 한다고 했는데 북한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식 숫자로는 말씀…… 하여간 영유아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대상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수해지역 이런 데 다 포함 안 되겠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물론 뭐 전체, 수해 입은 사람 이런 사람도 다 그렇겠지만 일단 취약계층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영유아·임산부 그런 거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북한은 거의 다 취약계층인데 어떻게 됐든 인도적 지원은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사실 햇볕정책은 첫째,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한미 동맹, 세 번째 한·미·일 공조, 네 번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20~30년 후에 통일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20~30년' 얘기를 하니까 '40~5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명박정부에서 '햇볕정책은 퍼주기다'라고 하면서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은 싹둑 잘라 버렸어요. 다행히 박근혜정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퍼주기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거예요, 식량도 주고 약품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퍼오게 했습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 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런다, 또 북한을 완전히 길들이자, 차제에 김정은을 굴복시키자, 그렇게 해 봐야…… 우리가 통독 과정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서독 경제는 당시에 통독 때 세계적 경제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류협력 하자고 하는 건데 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면 북한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형제고 적이면서 통일의 대상이고 또 협상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마는 거의 5시간 반, 6시간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차관께서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10분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누구 꼭 하고 싶은 분……

○윤후덕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원 예, 자료요청만 하세요.

○윤후덕 위원 지역이 접경지역 파주여서 그러는데, 신문기사에 보면 '정부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의사를 밝힌 이후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검토해 왔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을 검토해 왔는데 이 자료 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지금 통일부 간부들이 다 배석하셨는데요. 유일하게 홍일점 여성분이 계시는데 통일부에서 뭘 담당하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지원 여성이 더 섬세하니까 잘하십시오.

○설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지원 설훈 위원은 하면 오래 하는데……

○설훈 위원 아니, 오래 안 할게요, 간단하게 할 테니까.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설훈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론 북한이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차관 김남식 그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지지부진하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예, 제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이 GTI 쪽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다시 재가입하게 하고 이쪽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화공원 못지않게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장래에 갈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궁리를 해서 건의를 한번 대통령께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식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훈 위원 예.

○위원장 박지원 뭐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장관께서 1시 20분에 떠나실 때에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는 렘케 유엔 스포츠특별보좌관을 한번 면담을 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등 여러 가지 체육교류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한번 간담회나 또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내주 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 현대아산 등 금강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내륙에 진출된 기업들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만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정상화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들이 개성공단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자 하는데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들은 통일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사실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 남북관계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위원들이지만 어떤 전문가 못지않게 핵심사항을 질문했고 또 통일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 역시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7만 5000~6000의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조금 많이, 조속히, 빈번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10월 2일이지요? '10월 2일 회담을 북측이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5년간 폐쇄됐던 금강산관광 역시 정부가 꼭 재개를 해서 남북관계가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것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DMZ평화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건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통일부에서 특정 지역을 결정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답변을 확인하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또 '검토 단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결정과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접경지역 강원도나 경기도 여기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사실 금강산관광이 스톱되자 강원도 경제, 특히 고성군 경제 같은 것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수 문제나 전염병 문제, 자연재해 여러 가지가 남북 간에 접경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 달라,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야 위원 누구도 통일부의 위상을 좀 강화시켜라, 주도적으

로 해 달라, 물론 장차관께서는 통일부에서 일을 전부 한다라고 하지만 위원도 언론도 국민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 강화는 통일부의 장차관은 물론 통일부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정책을 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여섯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통일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오늘 생중계를 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취재를 해 주신 언론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장관·차관께서, 또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통일부와 위원님들께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경협	김영우	김회선	박인숙
박지원	백재현	설훈	심윤조
안민석	윤후덕	이석기	이이재
이종훈	이학재	홍익표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전문위원	이용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관	류길재
차관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황부기
통일정책실장	천해성
정세분석국장	이정옥
교류협력국장	이수영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김기웅
남북회담본부장	설동근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	이강우

○출석 참고인

유창근(개성공단기업협회 대변인겸부회장)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기획분과위원장)
강창범(개성공단기업협회 피해대책분과위원)